서초나비마을넷 ——— 자원 아카이브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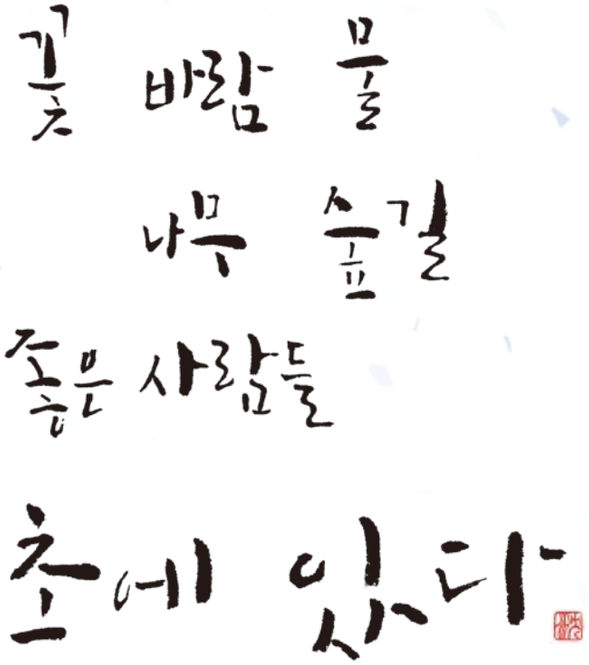
서리풀향



서초나비마을넷 ——— 자원 아카이브 I

서리풀향





난향 심재숙
(사)한국수묵캘리그라피 협회 회원
2019 인천 계양 전국미술대전 특선 작가

차례

1. 서초마을 나무이야기

8 **뽕나무**
마을 정체성으로 부활하다

12 **향나무**
천년을 아우르는 균형의 추

16 **느티나무**
나란히 마을 품어 지켜온 육형제

20 **회화나무**
동자 미륵과 함께 형촌마을 수호

24 **굴참나무**
미륵당과 함께 원터골 지키는 당산나무

2. 서초마을 길이야기

물길

30 **양재천**
도심 속 생태공원 서울의 미래유산!

34 **여의천**
왜가리 노니는 하천의 변신은 무죄

36 **반포천**
도심 속 호젓한 명상의 길

숲길

40 **우면산 둘레길**
도심 속에서 떠난 숲길 여행

44 **구룡산 둘레길**
전망 뛰어난 서초의 산소 탱크

글길

48 **피천득 산책로**
못다 한 우리의 산책은 계속되리니

52 **칸트의 길**
사색의 공간

손길

56 **방배 사이길**
한 박자 쉼이 있는 곳

60 **악기거리**
클래식 선율과 낭만이 흐른다

64 **길마중길**
숲과 예술의 조화 이룬 산책 코스

3. 서초나비마을넷 사람들

70 **마을, 부모와 자녀를 잇다**
… 오영숙

72 **마을, 사람과 사람을 잇다**
… 김혜옥

74 **마을, 상생을 말하다**
… 김은영

77 서초나비마을넷 사람들

86 50플러스 마을기록지원단

90 사진으로 보는 서초의 자원

98 서초나비마을넷의 역사

1.
서초마을 나무이야기



서초구 반포본동에 거주하는 류현미씨가 교대 앞 사거리 향나무를 드로잉 했다.
류현미씨는 2020년 서초 이웃만들기 지원 사업에서 '마을그리기' 활동을 하고 있다.

서초를 초록의 도시라 부른다.
서초 곳곳에는 숲길, 물길, 산길이 즐비하다.
도심 한가운데 오솔길이 깊은 산으로 이어지고
도로에서 계단을 내려가면
흐르는 물길이 이어진다.

그 어느 곳보다 자연과 가깝게 호흡하며 거주할 수 있는 곳,
우리 마을 서초를 오래전부터 지켜주던
마을의 나무들을 소개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모두 지켜봤던 그들…
땅에 뿌리내려 흔들리는 운명들을 지켜주고 버텨냈던
우리의 나무들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서초나무 / 01

뽕나무

마을 정체성으로 부활하다



2017년 서리풀 마당 잠원 나루축제 동영상을 다시 돌려 봤다.
축제에서 왕실의 여인들이 비단옷을 차려입고 '친잠례'
(조선시대 왕비가 직접 누에를 치고 고치를 거두던 의식)를 하는
의례를 하고 있다. 옛 축제가 왕실의 여인들이 즐기던 것이었다면
최근의 마을축제는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잠원 나루축제를 즐긴다.

도대체 마을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잠원동 뽕나무'는 600여 년 세월을 이야기한다.
무성한 잎으로 누에를 사랑했었다고
뿌리 없는 텅 빈 줄기로 말하고 있다.

뽕잎으로 성숙한 누에는 사람에게 비단옷과 음식을 주고 하늘로 올랐다.
잠원 마을은 마른 뽕나무 곁에 어린 뽕나무를 심어 역사를 소환했다.

잠원동 뽕나무

주소
서초구 잠원동 55-1

보존 현황
천연기념물 제77호.
1973년 이후 서울시 기념물
제1호로 지정

서울 지하철 3호선 잠원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거리, 잠원 한신 16차 아파트 120동 앞에 잠원동 '잠실리 뽕나무'로 표기돼있다. 표기는 그렇게 돼있지만 잠원동에 있는 나무를 송파구 잠실과 구분하기 위해 '잠원 뽕나무'로 부른다.

이곳에 뽕나무가 심어진 건 조선 세종 때로 짐작되고 있다. 잠원 뽕나무의 수령을 600여 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넓은 땅에 뽕나무가 심어졌다. 그 거대한 뽕밭이 지금은 아파트의 바다로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이뤘다.



누에다리 입구

600년이 지난 현재, 마른 뽕나무 한그루만 남아 조선 왕조 궁궐의 비단 생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열쇠가 되었다. 잠원의 어원은 누에 치는 뽕나무를 심어 잠실리 '잠(蠶)'과 세조 때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제단이 있어 신원리 '원(院)'이 합쳐져 잠원이 됐다고 한다.

농사와 함께 누에 치는 일이 농상(農桑)이다. 농상은 백성들의 음식과 의복을 공급하는 나라의 핵심 산업이었고 양잠(養蠶)은 농사와 함께 권장됐던 산업이다. 조선법

전 경제육전(經濟六典)에 따르면 뽕나무를 대농 300그루, 중농 200그루, 소농 100그루 심게 했다. 어기면 고을 수령을 파직할 정도였다. 잠원동은 조선 왕가의 잠소(蠶所)로 뽕나무를 키워 농민에게 시범을 보이고, 잠실도회를 설치하여 전국에 누에씨를 공급하던 누에 곳간인 셈이었다.

잠원동 뽕나무는 일제 강점기 시대인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당시 뿌리까지 뽑힌 고사목으로 1982년 고사목 주위에 뽕나무들을 심어 뿌리 뽑힌 할아버지 뽕나무를 어린 뽕나무들이 성장하며 감싸고 에워싸 현재에 이르렀다.

죽은 뽕나무 한 그루가 한때 이곳이 거대한 양잠 지역이었다는 정체성을 보여주며 21세기 첨단 도시 서울의 서초에 조선의 역사를 소환하는 아이콘으로 우뚝 서 있다.

잠원동 뽕나무에서 한강 방향으로 15분 정도 걷다 보면 '누에공원'이 나온다. 누에체험관은 잠원 나루터에 조성된 청소년들이 직접 누에의 삶을 체험하는 학습장이다. 주변에 버들 뽕나무가 수려한 자태를 뽐내고 하얀 누에 의자가 있어 한강의 기적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잠원역은 출입문부터 뽕잎을 바탕으로 누에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구내에 잠원 뽕나무와 한강 누에공원 사진을 게시하고, 양잠 관련 시설물 등을 전시하여 누에를 테마로 한 역사임을 보여준다. ▶화보 95페이지 참조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호수 현황

자치구	합계	느티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향나무	소나무	기타 나무
계	208	99	48	18	14	8	21
종로구	30	8	7	5	1	5	4
서초구	25	19	1	2	1	-	2
용산구	19	7	10	-	-	-	2
⋮							

http://data.seoul.go.kr/dataList/10343/S/2/datasetView.do
서울시 보호수 현황 통계 (2020년 7월31일 기준)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조경과

서초구 지정보호수 현황

지정 번호	지정 년월일	수종	수령	높이	둘레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서22-1	'68.7.3	느티나무	618	23	5.6	염곡동 56-3	서울시	서초구
서22-2	'68.7.3	느티나무	618	30	6.5	염곡동 56-3	서울시	서초구
서22-3	'68.7.3	향나무	881	18	3.9	서초동 1748-7	서울시	서초구
서22-4	'68.7.3	느티나무	451	12	3.6	방배동 970-32	김창호	김창호
서22-5	'72.10.12	회화나무	371	18	3.8	우면동 650-11	서초구	서초구
서22-6	'72.10.12	은행나무	391	19	3	반포동 535-32	서초구	서초구
서22-7	'81.10.27	느티나무	364	23	3.8	반포동 12	한신A	한신A
서22-9	'72.10.12	굴참나무	272	27	3.8	원지동 419-7	서초구	서초구
서22-11	'81.10.27	느티나무	253	25	3.5	잠원동49-35	서울시	서초구
서22-12	'81.10.27	느티나무	329	15	2.9	내곡동 92-1	서울시	박치옥
서22-13	'81.10.27	느티나무	329	11	2.4	내곡동 92-1	서울시	박치옥
서22-14	'81.10.27	느티나무	303	20	3.9	방배동 906-15	서울시	서초구
서22-16	'81.10.27	느티나무	303	17	1.8	방배동 906-16	서울시	서초구
서22-17	'81.10.27	느티나무	303	17	2.1	방배동 906-16	서울시	서초구
서22-18	'81.10.27	느티나무	303	18	3.2	방배동 906-16	서울시	서초구
서22-19	'81.10.27	느티나무	303	15	3.5	방배동 906-16	서울시	서초구
서22-20	'81.10.27	느티나무	314	15	3.5	방배동 906-16	서울시	서초구
서22-21	'68.7.3	느티나무	181	21	1.4	잠원동 120-1	서울시	서초구
서22-22	'68.7.3	느티나무	181	20	2.3	잠원동 120-1	서울시	서초구
서22-23	'68.7.3	느티나무	181	20	2.1	잠원동 120-1	서울시	서초구
서22-25	'68.7.3	느티나무	189	22	2.8	신원동 194	국(건교부)	서초구
서22-26	'68.7.3	느티나무	189	24	3.8	신원동 194	국(건교부)	서초구
서22-27	'00.12.20	느티나무	469	12	5	우면동 46-12	서초구	서초구
서22-28	'00.12.20	회화나무	239	12	2.8	우면동 218-4	서초구	서초구
서22-29	'10.12.2	음나무	309	20	3.3	염곡동 212-25	서초구	서초구

2019.7.12. 기준 / 느티나무 19주, 회화나무 2주, 향나무 1주, 은행, 굴참, 음나무 각 1주 총

서초나무 / 02

향나무

천년을 아우르는 균형의 축



2009년 9월 6일 늦은 밤, 서초역에서 서초경찰서 구간
반포로에 길이 40m, 직경 7.8m의 거대한 구조물이 수송됐다.
일명 '누에다리' 특급작전.

서초의 초록 삶을 책임지고 있는 서리풀 공원과
몽마르트르 공원을 잇는 '누에다리' 설치 프로젝트였다.
이곳 '누에다리'에서는 예술의 전당과 우면산이 한눈에 보인다.
그리고 그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반쯤 줄기 잘린 향나무까지 말이다.

반포대로와 서초대로가 교차하는 중심에 올해로 수령 882세의 향나무가 우뚝 서있다. 서초동 향나무는 높이 18m, 둘레 3.9m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향나무다. 1968년 지정번호 서 22-3의 보호수로 지정됐다. '천년향'이란 이름은 서초구청이 지난 2009년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이다. 천년을 넘겨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리라.

서초동 향나무는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후손들이 나라의 발전을 기원하며 심은 나무로 전해진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꿈에 고려 왕건이 나타나 "나의 후손을 멸하지 말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했고 태조 이성계는 신하들에게 '왕' 씨들을 멸하지 말고 함께 살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곳이 현재 반포대로와 남부순환도로가 만나는 서초동 일대의 '왕촌 마을'이다.

왕촌 마을은 왕씨의 집성촌으로 1971년까지 100여 기의 묘가 있었고, 20여 가구의 왕씨 가문이 모여 살던 마을이다. 1971년 도시계획 사업으로 묘는 모두 이장됐고 이곳에 살던 왕씨 가문 및 원주민들 대부분이 이주했다.

서초동 향나무

주소
서초구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교차로 한 가운데

보존 현황
서울시 지정보호수 22-3
(1968년 지정)

'천년향'이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교차로 중심에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서쪽으로는 대법원과 몽마르트르 공원, 동쪽으로는 검찰청을 지나 서리풀 공원이 있다. 균형의 자리에서 저울추 역할을 하는 '천년향'. 현 한국 사회에서 균형과 저울추 역할을 해야 하는 대법원과 검찰이 그곳에 있음이 예사롭지 않다.

'천년향' 인근 거리에서 서초동 주민과 인근 직장인에게 물어보았다.
"항상 볼 때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저렇듯 나무가 꼿꼿하게 있다는 것이 참 대견해

보였습니다.” (40대, 전○경)

“출퇴근 시간에 쫓겨 의미 깊게 볼 시간은 없었어요. 차가 막혀서 정체가 심할 때 바라보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마치 사람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려는 기둥처럼 의연하게 있는 모습이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60대, 이○규)

매년 서초구청은 ‘천년향’을 위해 영양주사를 놓아주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는 등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천년의 생명을 기원하고 있다.

P.S. ‘천년향’을 낮과 밤 다르게 즐기는 방법

낮 서리풀 공원과 몽마르트르 공원을 이어주는 ‘누에다리’에 오르면 땅에는 왕복 8차선의 대로와 하늘로부터 이어지는 우면산과 이를 병풍 삼아 건축된 예술의 전당, 그리고 8차선 대로 한가운데를 갈라주는 ‘천년향으로 이어지는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막힘없이 뻥 뚫린 시야가 가슴 답답하거나 힘들 때 한번 올라가서 산의 정상이 아닌 누에다리 한 가운데에서 외쳐 볼만하다. ‘나 여기 잘 살고 있다’고 말이다.

밤 한낮을 뜨겁게 달구던 해가 뉘엿뉘엿 질쯤 이곳 천년향 교차로는 또 한 번 옷을 갈아입는다.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시간의 자동차 행렬들이 만들어내는 불빛은 대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경치 중 하나다. 야경에 물들어가는 천년향 교차로. 누에다리의 특별한 조명 속에서 저녁 불빛을 받아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잘 견디고 휴식을 준비하는 천년향을 바라보는 일은 서초 주민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조선시대 청백리 대표 기리는 탑이 법원단지에 세워진 까닭

정역 신도비



현재 서리풀공원 남쪽 서초동 법원단지 서울법원 등기국 옆에 ‘정역 신도비’가 있다. ‘천년향’에서 동남쪽으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데 지하철 역으로는 교대 역이 더 가깝다. 신도비가 있던 자리는 원래 서리풀 공원에 가까웠는데, 1980년대 서초구에 법원단지가 조성돼 해주 정씨의 묘가 경기도 여주로 이장되면서 신도비만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다.

‘정역’ 신도비에는 현재의 공무원과 고위 공직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역사가 담겨있다. 정역은 본관이 해주 ‘정’씨로 이름이 ‘역’이다. 고려 말 우왕 때 과거에 급제했으나 고려가 망하자 집에서 칩거하며 나오지 않았다.

조선이 세워진 후 태종은 정역에게 나라를 위해 일해 달라고 간곡히 권했다. 정역과 태종은 고려 말 치러진 과거에 함께 급제한 동기였다. 태종은 정역의 딸을 며느리로 점찍어 혼인을 시켰다. 정역은 당시 왕의 친구이자 사돈, 왕자(효령대군)의 장인어른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위치에 올랐다. 태종 때부터 세종에 이르기까지 관직을 두루두루 거치며 형조판서와 집현전 대제학까지 올랐다.

당시 조선 관직자들에게 ‘4불3거(四不三拒)’라는 지켜야 할 엄격한 수칙이 있었다.
▶4불(四不) 첫째, 부업 금지 / 둘째, 땅 매매 금지 / 셋째, 집 늘림 금지 / 넷째, 명물 탐하기 금지 **▶3거(三拒)** 첫째, 윗사람이나 권력자의 부당요구 거절 / 둘째, 청탁의 답례 거절 / 셋째, 애경사 부조금 거절

정역은 관직에 종사하는 내내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던 청렴결백한 사람이었다. 평소 정역은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어 존경을 받았고 1425년 사망했다. 이때 세종은 정역의 바르게 살아왔던 삶을 칭송하며 ‘정도’라는 시호를 내렸다. 정역의 신도비는 후손들에 의해 숙종 때 세워졌다고 한다.

서초나무
/
03

느티나무

나란히 마을 품어 지켜온 육형제

어려서 볼품없이 자라다 성장할수록 티가 난다 하여
'늦티나무'로 불린다. 무성한 그늘을 드리워
예부터 마을 입구 정자 옆에 주로 심는 당산나무다.

방배동에 위치한 느티나무 여섯 그루는 모두 수령이 300년이 넘었다.
300년 넘은 느티나무 한 그루에는 500만장의 잎이 달린다고 한다.
6그루 합해 3천만 장의 잎이 만들어내는 바람과 그늘을 상상해본다.

시원한 바람이 잎을 살랑 스치자 연달아 잎들이 몸을 부르르 떤다.
그저 바라만 보아도 좋다.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것이 당산나무다. 마을이 해체되고 대도시화 되면서 서초 강남권에 이런 당산나무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숨은 보석처럼 서초 곳곳에 옛 마을에서 당산나무 역할을 하던 나무들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방배동의 느티나무 여섯 그루가 바로 그런 나무다. 특히 방배동 파출소 인근을 둘러쌓아 파출소가 인근 주민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듯 300년 전부터 이곳의 주민들을 지켜온 마을 수호신으로 성장했다.

여름이면 넉넉한 잎사귀로 그늘을 만들어 동네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쉼터가 되고 가을이면 오롯하게 찾아온 단풍으로 파출소 일대를 사색과 감상에 젖게 하는 쉼터로 변신시켜주는 방배동 느티나무 육형제.

300년 전, 그곳에 뿌리내려 온갖 희로애락과 고난과 좌절, 역경을 모두 내려다본 나무 육형제가 이제 넉넉한 품으로 마을을 품고 있다. 마치 그간의 고생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이제 힘든 세월은 지나갔으니 조금은 쉬라고 말이다.

마침 공원에 산책 나온 주민에게 이 느티나무를 물어본다.

방배동 느티나무

주소
서초구 방배동
906-15(1그루)
906-16(5그루)

보존 현황
서초구 보호수 14호,
16~20호

"집에 있다 나오면 늘 이 느티나무들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죠. 삭막한 도시의 삶에서 이렇게 오래된 나무들 여섯 그루가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죠. 바라만 봐도 좋아요." (방배동 주민 김○○, 60대)



형제 우애와 부모에 대한 효를 기리는 언덕

청권사

지하철 2호선 방배역 4번 출구를 나오면 서울 유형문화재 제12호인 '청권사'가 있다. 청권사는 조선 제3대 태종의 둘째 아들이자 제4대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 부부의 묘와 사당이 있다.
세종은 첫째 형인 양녕대군과 둘째 형인 효령대군이 왕위를 양보한 덕에 조선의 왕이 됐고 조선 전기 최고의 성군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렇듯 큰 형에게는 지극한 덕을 발휘하여 지덕(至德)이라 하고, 둘째 형에게는 맑은 마음으로 왕의 자리를 양보했다 하여 청권(淸權)이라 부르며 형제의 우애를 노래했다.



청권사는 효령대군 부부의 묘만 있던 것을 영조 13년 사당을 건축했고 정조 13년에 현판을 내린 것으로 기록된다. 묘역은 왕세자 아닌 왕자의 신분이었기에 대군 묘로 소박하나 자녀가 유난히 많았을 만큼 부부간의 금실이 좋았던 효령대군 후손들의 사랑으로 아름답고 정갈하게 가꿔왔다.
청권사는 사단법인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 종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해 효령대군의 묘제 행사와 '효' 정신을 실천하는 문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청백리 성안공 상진의 꿈나무 터

성안공 상진 신도비

'청권사'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약 10분 정도 걷다 보면 상문 고등학교가 나온다. 상문고등학교는 목천 '상씨' 종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다. 상진은 조선 중종 때 태어나 과거에 급제해 명종 시대까지 재상을 지냈던 관료다. 상진이 사망하자 명종이 몹시 슬퍼하며 '성안공'이란 시호를 내렸다고 한다.
1969년 후손들이 상진의 삶을 건학 이념으로 '상문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상문고 학교 교내에 상진의 묘와 신도비가 있는 까닭이다.



상진은 재상 시절에 인재 등용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사람이 재주가 있고 없음은 사람 됨의 자질과 천품이 맑고 그렇지 못함에 있는 것이고, 출생에 귀하고 천함에 매여 있지 않으니 만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후실(後室)의 몸에서 태어났다 하여 쓰지 않는다면 어찌 인재를 취하고 택하는 도리에 맞겠는가?"라며 신분에 상관없이 탁월한 재능 있는 인재를 등용했다고 한다.

서초나무 / 04

회화나무

동자 미륵과 함께 형촌마을 수호



오래된 나무를 노목이라 부르고 굵고 큰 나무를 거목이라 부른다.
오래되고 큰 나무들은 흘러간 시간의 역사와 함께
우리 곁을 지켜준 버팀목들이다.

도시의 확장으로 도로 한편에 버려진 듯 서있어도
그쯤이야 아무 상관없다는 듯 무심하게 하늘 향해 도도하게 서있다.
우면동 형촌마을의 회화나무가 딱 그렇다.

회화나무는 사람이 다듬어주지 않아도 아름답다. 자유롭게 뻗은 가지의 기상이 깨끗하고 품격이 있어 학자수(學者樹)로도 불린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예부터 '회화나무 심은 곳에 학자나 큰 인물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회화(槐花)는 홰나무 "괴(槐)"로 고목의 옹이를 의미하는데 예부터 회화나무를 생명과 관계하는 신목(神木)으로 믿었다. 가족에게 병이 걸리면 회화나무 앞에서 치성을 올리고 가족과 마을의 안녕을 기도했다.

우면동 회화나무

주소
서초구 우면동 218-4

보존 현황
서초구 보호수 22-28
(지정일 2000년 12월 20일,
지정일 기준 수령 220년)

우면산(牛眠山)은 소가 잠자듯 편안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하여 우면산으로 불린다. 남태령 길에서 분가한 관악산의 막둥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서초구가 신설되며 우면, 양재, 서초, 방배동을 품었다. 우면동은 '우면산 아래 골짜기 마을'이라 붙여진 동네 이름인데 우면동에 있는 형촌(荊村) 마을은 가시덤불이 우거져 '가시내골'이 한자로 된 지명이다.



형촌마을 한적한 골목에 수려한 회화나무 한 그루가 있다. 서초구 보호수로 2020년 현재 수령 240세로, 높이는 12m에 둘레는 2미터 80cm이다. 회화나무 앞에 갓을 쓴 돌이 예사롭지 않다.

**"회화나무는 형촌마을 한가운데 있으며
나무 밑에 있는 동자상(童子像) 미륵(彌勒)은
마을을 지키는 신령함이 있었다~"**

형촌마을 태봉산에는 조선시대 왕손의 태를 묻는 태실이 있다. 그만큼 좋은 터라는 뜻이다.

아래로 양재천이 흐르고 뒤에는 우면산이 버티고 있다. 그러나 난개발은 자연을 화나게 한다. 2011년 7월 집중 호우로 무너진 우면산 산사태가 좋은 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후세를 위해 개발은 이제 그만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을 투자의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내 후손까지 깊게 생각해 볼일이다.



삼국시대 유적 망루 근린공원

삼국시대 석실묘

우면동 망루 근린공원은 우면동 네이처힐 1, 2단지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2010년 우면지구를 조성하면서 구석기시대 유적과 신석기시대 야외 화덕자리, 초기 백제시대(기원전후~475) 중앙 왕족, 귀족들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5세기경의 대형 석실 무덤 2곳과 백제인들의 마을 집터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후 유적을 발견하고 흔적을 보존하기 위해 이곳에 공원이 조성됐고 유적 자리에는 풀과 흙을 덮고 그 위에 유적임을 알리는 작은 표지판을 세웠다. 이후 유적 발굴 이후에는 모두 땅을 갈아엎었다. 월성대군 태실이 위치한 태봉산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있다. 유적지들이 모두 덮인 아쉬움이 남지만 그나마 공원이라도 조성됐다는 것에 위안을 가져야 할 듯.

월산대군 이정 태실

태봉산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메라
낚시드리오니 고기 아니 무노메라
무심(無心)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가노메라(월산대군)

우면동 형촌마을 태봉산 정상에는 1462년에 세운 월산대군 이정의 태실이 있다.
'태실'이란 왕가에서 태어난 왕족의 태를 백자 항아리에 담아 봉안하고 표석을 세워놓은 것을 말한다. '태봉'이라고도 불린다. 조선 시대는 왕손의 태를 명당자리에 묻고 금표를 세워 일반인 출입을 못하게 엄격히 보호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이 태실도 모두 파헤쳐져 어디론가 없어졌다.
현재 원 위치에 원형대로 남아 있는 것은 월산대군 이정의 태실 하나다. 그러나 내부에 있어야 할 태 항아리와 지석은 일본인에 의해 도굴됐다. 반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현재는 일본 아타카 컬렉션에 소장돼있다. 태봉산에는 태비 1기와 석함 1기가 남아 있다. 월산대군 이정 태실은 2010년 서울시 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됐다.

월산대군(1454년~1488년)은 조선 덕종의 큰 아들로 제9대 성종의 형으로 어려서부터 성품이 침착하고 부드러웠다. 맏아들이었으나 대신들의 농간으로 왕위의 뜻을 비우고 현실을 떠나 은둔하며 풍류로 여생을 보냈다.
학문을 좋아하고 품격 있는 문장과 시문으로 유명하여 [풍월정집]이라는 문장집을 남겼다. 지금의 덕수궁이 월산대군이 기거했던 사저였다. 어머니인 인수대비가 병에 걸려 이를 간병하다 35세 나이에 일찍 사망했다.

서초나무 / 05

굴참나무

미륵당과 함께 원터골 지키는 당산나무



원터골을 상징하는 도당나무와 미륵당.
그 옛날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염원하며 미륵당과 도당나무에는
치성을 드리는 아낙과 마을을 알리는 깃발들이 휘날렸을 것이다.

한때 도성 서울을 향해 올라오는 지방 관리들이
피곤을 털고 하룻밤 묵었을 그때 그곳.
지금은 도심의 때를 벗기 위해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의 첫 관문으로 피곤을 덜어주는 곳이 됐다.

청계산 등산을 위해 초입에 들어서면 원터골(원지동)의 도당나무로 우뚝 서있는 키 큰 나무를 만난다. 이곳은 나무를 둘러싸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데크를 만들어 놓아 산에 오르기 전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 인근 커피숍에서 차 한 잔을 뽑아 마시는 사람 등 늘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이다.

원지동 굴참나무

주소
서초구 원지동 419-7
청계산 입구

보존 현황
서초구 보호수 22-9
높이 27m, 둘레 380cm
수령 273세

예부터 오래된 거목은 마을 사람들이 영험하다고 믿었고 이런 대표적인 나무를 도당나무(당산나무)로 불렀다. 원터골의 도당나무인 이 거목의 수종은 참나무. 단단하고 키가 커서 쓰임새가 많은 참나무는 나무를 대표하는 수종 중의 하나다. 특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도토리묵에 사용하는 도토리가 참나무의 열매다. 춘궁기가 돌아오면 산속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 묵을 쒀서 보릿고개를 넘기곤 했던 그때를 돌아보게 하는 나무다.



현재 원터골에는 20여 가구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원주민 대부분은 해주 '오씨' 자손이며 15대까지 이어져 거주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워낙 등산객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상대하는 가게가 많이 생겼고 대부분은 외지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오히려 원터골 원주민들인 연로하신 어른들이 원터골에서 청계산 입구로 들어가는 전철 역사 터널 아래에서 산나물과 야채 등을 판매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원터골에서 '소풍 가는 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의 말이 예사롭지 않다.

"원지동 미륵당을 믿는 사람들은 6·25 때 전사자가 하나도 없었어. 아직도 미륵당을 찾는 이들이 있는 이유야. 10년 전에 서초구청에서 원터골 도당나무 앞에서 무속인을 초청해 '동제'까지 지냈었는데… 요즘은 2년에 한 번씩 청년 향우회에서 우리가 마을 안녕을 위한 제를 지내고 있지." (오선○, 63세, '소풍 가는 날' 가게 운영)

도당나무와 미륵당이 보존되고 관리되는 서초의 모습. 우리가 이 빛나는 초록의 도시, 서초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함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마을의 수호신 석불입상과 석탑

원지동 미륵당



1926년 일제 강점기에 원터마을 미륵당 석불을 일본인들이 밀반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때 뇌우가 몰아치자 깜짝 놀라 모두 도망쳤고 미륵석불의 신비함에 마을 주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자 놀란 일본 순경은 마을 입구에 있던 300년 넘는 느티나무들을 베어 마을 주민들이 뭉치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고 한다.

청계산 입구부터 미륵당까지를 원터마을(한자:원지동)로 부르고 행정권역은 양재동이다. 미륵당 길 건너부터 여의천까지는 청룡마을이라 부르고 행정권역은 내곡동이다. 청룡마을 길 건너 원터마을에 7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미륵당이 있다. 정확하게 미륵당이 언제 생겼는지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그 마을에서 평생을 살며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이야기로 짐작컨대 700년 정도 됐다는 이야기만 들어왔다고 한다. 대충 건립 시기를 고려말로 짐작할 뿐이다. 현재 원지동 미륵당은 지난 1993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3호로 지정됐다.

"20년 전에는 초가집에 미륵을 모셨지. 미륵불 제대 앞에 산신과 칠성도 모시고… 바로 이 자리가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흐르는 '혈' 자리야. 연례행사로 동제를 지냈는데 지금은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치성을 드려."
(원지동 미륵당 관리자 오○식. 원터마을 주민, 85세)



원지동 석불은 불상이 아니라 마을의 안녕을 위한 수호신으로 민간신앙인 성황당이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미륵불은 관리들이 지방을 왕래하는 길에 복을 비는 기원의 대상이었고, 석불에 치성을 드리면 길흉화복을 게시한다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석불은 화강석 225cm로 규모가 큰 하나의 돌기둥 같은 모습인데 하부가 땅에 깊이 묻혀 촉촉한 기운이 몸체까지 올라와 습기가 찬 듯싶어 보인다. 석불 표면에 칠해진 백색 호분에 오랜 세월의 흔적과 사람들의 손길이 새겨져 있다.
머리가 커서 얼굴이 편평하고 넓다. 어깨는 좁아 토속적인 모습이다. 눈썹과 눈매, 코, 작은 입이 삐죽 나와 해학적이고 투박함이 매력이다.
원지동 미륵불을 보고 싶다면 관리인과 사전 약속을 하고 가야 한다.

2.
서초마을 길이야기



서초구 양재동 박연화 주민이 양재천을 드로잉했다.
양재천 인근에 거주하는 박연화씨는 자주 아이들과 함께
양재천을 거닐며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길이 모여 마을을 만들고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
푸른 길과 흐르는 물이 있어 서초는 풍요롭고 윤택하다.

우리가 서초의 자연에 눈 맞추고
손으로 가꾸며 정성을 쏟을 때,
비로소 품격 있는 사고와 배려 깊은 마음,
예술적 창의력이 살아난다.

물길, 숲길, 글길, 손길로 나눠 서초의 품격을
다시 한 번 조명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초마을 / 물길

양재천

도심 속 생태공원 서울의 미래유산!



전국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진입로가 있어 온 종일 북적거리는
서울의 관문, 양재동은 교통 체증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하지만 도로 옆 계단으로 내려가면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물길에
사시사철 흐드러지게 핀 꽃길하며 마치 별천지가 펼쳐진다.

양재천은 구룡산과 대모산의 명당 기운을 받은 대한민국의 미래유산 생태천이다.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했다는 구룡산, 원래 열 마리였는데 그중 한 마리가 하늘에 닿지 못하여 인근 개천에 떨어졌다고 한다. 그 용은 하늘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인간들에게 좋은 인물과 좋은 물이 되어 도움을 주었다 한다.

이에 기인하여 '양재천'이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한편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양재동(良才洞)에 연유하여 양재천(良才川)으로 이름 지었다고도 한다. 예전에는 공수천(公需川)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양재천은 원래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한강의 1차 지류였으나 한강연안개발사업과 주변 일대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탄천으로 유입되는 유역의 유로가 변경되어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하천이다. 총 구간은 15.6km이며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은 3.7km이다. 양재천의 평균 하폭은 66~13m에 달한다.

양재천은요?

관악산에서 발원해 과천 막계천을 거쳐 강남구와 서초구를 가로 지른 뒤 탄천과 합류하는 길이 1536km의 하천이다. 원래 한강의 제 1지류로 탄천과 합류하지 않고 곧바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국가하천이었다.





양재천에는 자전거 도로가 일방 통행제로 실시되고 있다. 북쪽은 서초구 방향으로만 진행이 가능하고, 남쪽은 탄천 방향으로만 가능하다. 하천 좌우에는 보행자 취향에 맞추어 이층단의 깔끔한 산책로가 있고 유모차를 끌거나 장애인도 휠체어를 타고 산책할 수 있도록 계단 없는 비탈길이 데크로 조성되어 있다.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양재천은 양재천 생태계 복원이라는 목표 아래 자연형 하천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되살리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물과 맞닿는 부분에 돌, 나무, 갈대, 갯버들 등 자연재료를 이용한 식생호안공법을 도입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생물의 서식공간을 넉넉히 확보하게 되었다.

자연형 하천의 기본이 되는 식생호안공법은 수질 정화 효과는 물론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그늘을 제공하는 등 하천 생태계의 복원은 물론, 홍수에도 안전하며, 하천 경관을 더욱 개선 시켜주는 데 큰 역할을 한다.

2015년 12월 23일, 도심공원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양재천에는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벼농사 학습장. 무더위를 물리칠 수영장, 아이들의 신나는 겨울 놀이 얼음 눈썰매장 등이 있어 서초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놀이공원 일부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영동2교부터 시작되는 고백의 정원, 사랑의 정원, 연인의 정원, 물소리 정원 등의 테마가든은 데이트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찾는 이들의 오감을 만족시켜 주고 있다.

양재천 둑길을 따라 와인바, 카페, 운치 있는 레스토랑들로 형성된 '연인의 거리'는 자연과 인공의 미가 어우러져 낭만과 휴식을 안겨주는 양재천의 명소다. 분위기 그윽한 와인 바와 테라스가 있는 노천카페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가족들의 모임 장소로 인기가 좋다.

수변 무대에서는 매주 통기타 및 색소폰, 노래를 좋아하는 일반인 대상 음악 동호인들의 야외 음악공연을 선보이곤 하는데 개중엔 연습 삼매경에 빠진 나홀로족들의 용감한 무대가 펼쳐지기도 하는 곳이다.

개천 넓은 공터 곳곳에서는 계절에 맞춰 아이리스, 무궁화, 개나리, 진달래, 수선화, 쉬땅나무, 국화 히아신스, 단죽화 등 각양각색의 식물들이 향연을 펼친다.

'양재천 천천투어'로 도심 속에서 즐기는 생태체험을 해볼 기회도 마련돼 있다. 천천투어는 14인승 전기 셔틀카를 타고 양재천을 이동하면서 뗏목체험, EM흙공 체험, 꽃 심기, 미꾸라지 방류, 오리먹이 주기, 잉어먹이 주기 등 도심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살아있는 체험학습이다. 이밖에도 각종 이름을 건 걷기 대회, 만화축제, 마라톤 등 각종 행사의 중심에 양재천이 있다.

양재천은 이제까지 이 길을 걸었고 앞으로 걸을 수많은 이들에게 지친 하루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휴식을 주며 위로를 건넨다. 실의에 빠진 사람이든 희망에 부푼 사람이든 양재천을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충분한 위로를 건넬 줄 아는 서초구의 자랑스런 미래유산이다.



서초마을
/
물길

여의천

왜가리 노니는 하천의 변신은 무죄



여의천 주변은 청계산, 인릉산 둘레길에서
양재 시민의 숲까지 연결되는 최상의 코스다.
청계산 인릉산의 사계절과 인근의 문화재 등이 있어
가볼만한 볼거리가 무궁무진하다.
봄이면 여의교에서부터 시작되는 담장처럼 둘러친
개나리 넝쿨 벽과 벚꽃길, 가을이면 코스모스, 억새들이 반겨주어
사시사철 운치 넘치는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서초구 신원동의 136-1번지를 기점으로 하여 양재동의 양재천 합류점이 종점인 여의천은 양재천 제1지류에 2급 하천으로 한강수계에 속한다. 기후변화로 천이 말라 습지로 변하고 입주한 아파트에서 생활 오폐수들이 흘러들어 악취가 진동하던 여의천을 부활시킨 것은 꾸준히 민원제기를 해온 지역 주민들의 힘이다. 서초구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부터 청룡마을에서 양재천까지 4km 구간에 직경 400mm 관을 매설했고 양재천에서 하루 9천500t의 물을 끌어와 여의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흘러내리게 했다. 여의천 유지용수 및 차집관거(하수를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관로) 부설공사로 지금의 맑은 물길로 변신케 했다. 그 외 갯버들, 갈대, 부들, 창포 등의 수변 식물과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여의천 변에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도 새롭게 조성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깔끔히 해결하여 지금의 여의천으로 탈바꿈했다.

여의천은 하천이라기 보다는 실개천에 가깝지만 좁은 하천의 장점을 살려 군데군데 징검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흘러가는 물소리를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본 마을 앞은 물장구를 치는 어린이도 볼 수 있어 시골 개울가 같은 친근함이 가득하기도 하다.

마을행사로는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여의천 힐링 음악회' 방치된 하천 변 유휴지에서 수확한 '사랑의 감자 캐기' 행사 등 다양한 마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청계산에서 본 마을 앞을 흘러가는 천변 주변에 어린이 놀이터, 주민 센터, 아담한 카페들이 있는데 특히 노천 카페에서 자연을 배경 삼아 흐르는 물소리를 가깝게 들으며 휴식을 취하기에 적당한 곳이다. 하천 주변엔 녹지대와 정자, 아담한 운동장에 운동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기도 한다.

운이 좋으면 왜가리와 백로를 볼 수 있다.

여의천은요?

구룡산 계곡에서 흐르는 물과 청계산 신원동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염곡동에서 합류 양재천으로 흘러든다.
길이는 대략 4~5km가 된다.
옛 지명은 염곡천(廉谷川)이었으나 '안개가 자주 끼는 하천'이라 하여 연내천(煙內川)이라고도 불렀다.

서초마을
/
물길

반포천

도심 속 호젓한 명상의 길



현재도 진행중인 반포천 재생 프로젝트.
주민과 행정이 함께 천을 살리기 위해 협심하고 있는 곳이다.
반포천을 따라 걷다 보면 한강 공원까지 이어져
이곳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도심의 일몰에서 만나기 힘든 감동을 전해준다.

반포천은?

한강의 제 1지류.
서초구 우면산에서 발원하여 지류인 사당천과 합류한 후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이다. 菊逸川, 蟠浦川, 서릿개라고도 한다.

지하철 3호선, 7호선, 9호선이 얽혀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5번 출구로 나오면 조깅과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며 가볍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반포천을 만날 수 있다.

잦은 수해로 침수가 잦았던 이곳이 빗물펌프장과 관로를 개선하면서 상습 침수 지역의 오명에서 벗어났다. 우면산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서울교대, 경부고속도로 부근의 복개천을 지나 동작강으로 합류한다.



반포천의 구간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5번 출구에서 동작역까지 2.12km 되는 거리로 20여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여유가 된다면 피천득 산책로와 동작역 부근의 허밍웨이길, 반포 종합운동장, 동작대교 구름카페. 서래섬까지 가볼 수 있어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봄이면 벚꽃, 유채꽃, 이팝나무들이, 가을이면 단풍들이 반포천변을 수놓아 사계절 볼거리가 풍성한 곳이다. 반포천을 따라 걷다 보면 도도한 자태를 뽐내며 물가에 서 있는 왜가리와 청둥오리, 잉어 등이 한가롭게 노니는 모습을 즐길 수 있기도 하다.

반포천은 물줄기가 실타래처럼 서리서리 흐르면서 물안개가 끼여 흘러간다고 해서 서릿개라고 불렸다고 한다. 잦은 침수와 흘러든 생활오수로 악취가 진동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자, 반포천 주변 주민들과 매칭된 기업이 합심해서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와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 수질검사 등을 활발히 해온 결과 지금의 반포천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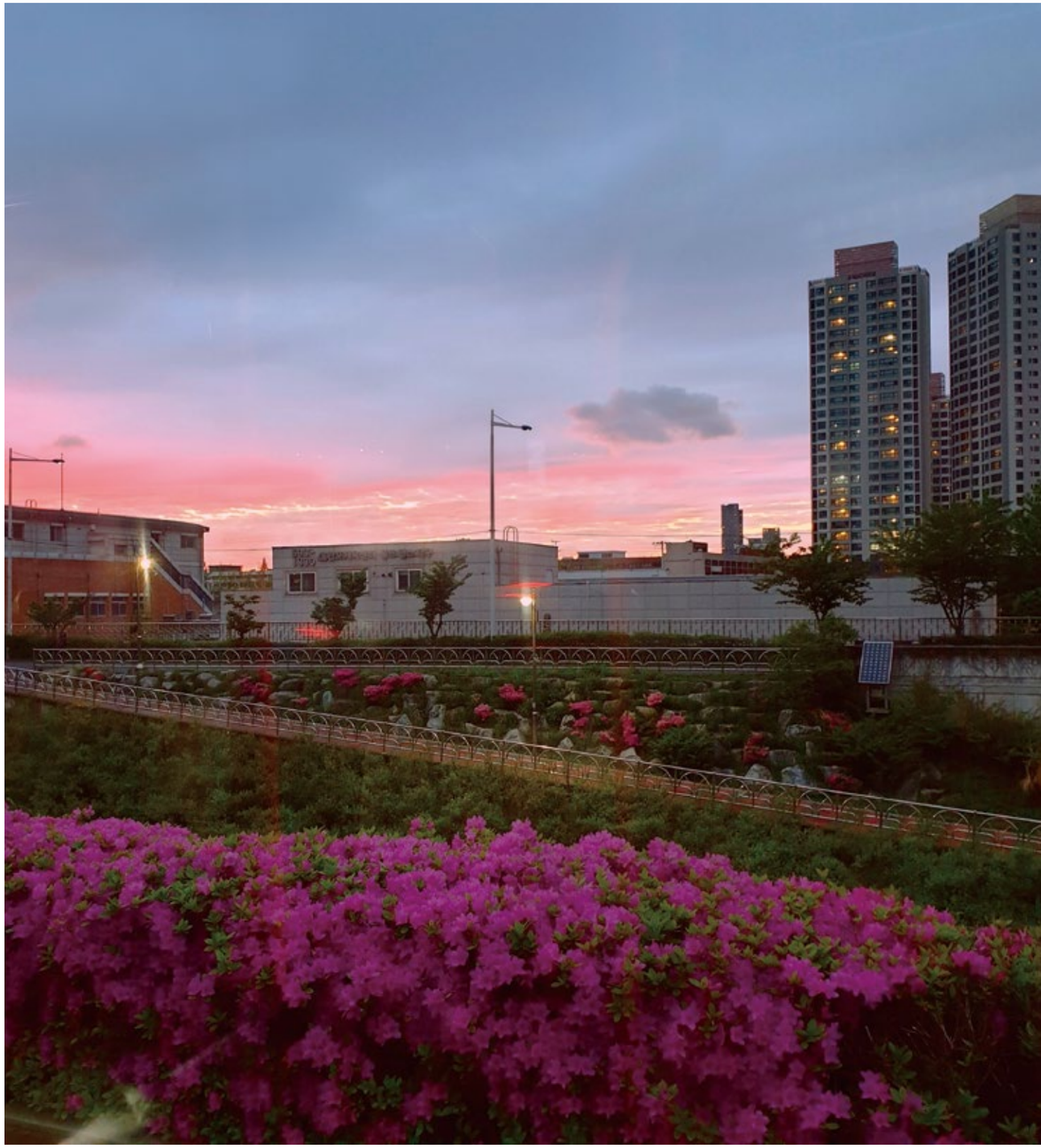
'반포천 재생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이다. 각종 수생식물을 곳곳에 심어 수질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에 힘입어 수질 상태 및 생태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밀집된 사무실의 직장인들이 식사 후 음료 한잔과 함께 잠시 머리를 식히는 곳이며, 근처 쇼핑몰을 찾아 나섰던 이들이 잠시 쉬었다 가기에 적당한 곳이다.

이렇듯 반포천은 이곳을 찾는 모두에게 여백의 쉼을 제공해주니 지역 주민들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곳이다. 걷는다는 것은 몸으로 걷기도 하지만 마음 담아 걷기도 하는 것이다.

EM 흙공 던지기, 친환경EM비누 만들기, 지하 보도 벽화 환경미관 개선 등과 함께 반포천 재생 프로젝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재의 반포천으로 탄생했다.

환경에 앞장선 그린 리더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도심 속 호젓한 산책, 명상의 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서초마을 / 숲길

우면산 둘레길

도심 속에서 떠난 숲길 여행



예술의 전당 못 미쳐 남부순환로 대로변에 서초 약수터 입구가 있다.
이곳으로 진입하면 우면산 속으로 풍덩 들어간다.
소음과 인파로 뒤덮인 대도시 한복판에서
신록과 새소리 가득한 자연으로 마치 공간 이동한 듯하다.
앨리스가 토끼를 쫓다 굴에 빠져 이상한 나라에서 여행을 하는 것처럼
도심 한복판에서 산자락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대도시 서울의 남쪽을 연결하는 남부 순환로. 출퇴근 시간 이곳 도로에 쭉 늘어선 차량들을 보면 새삼 서울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메가 도시임을 깨닫게 된다. 이곳 남부 순환로 대로를 중심으로 한쪽 편에는 고층 아파트, 맞은 편에는 초록색 신록이 반짝이는 우면산이 자리 잡고 있다.

우면산 둘레길

위치 및 코스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인재개발원 건너편 서초 약수터 입구 진입 후 예술의 전당 가는 길을 숲 속으로 걸어가는 코스. 가는 도중 아쿠아 육교를 지나며 폭포 구경, 예술의 전당 광장으로 나가기 전에 대성사 거쳐 소망탑까지 등산 추천

예술의 전당 못 미쳐 서초 약수터라는 표지판이 보이는 입구로 올라가 본다. 우면산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다양하다. 하지만 소음과 인파로 뒤덮인 대도시 한복판에서 신록과 새소리 가득한 자연으로 마치 공간 이동한 듯한 신기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이곳 서초 약수터 입구를 통해 들어갈 것을 권한다.

마치 앨리스가 토끼를 쫓다 굴에 빠져 이상한 나라에서 여행을 하는 것처럼 서초 약수터 입구로 들어가면 갑자기 도심 한복판에서 산자락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면산은 도심 속의 산이라 깊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길 하나 건너 산속에 갔다 올 수 있다. 산책을 통해 사색과 관조를 할 수 도심 속의 숲길들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서초 약수터에서 약수를 떠서 집으로 갖고 가는 이들이 많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 식수로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장균 등 총 6개 항목의 검사를 통해 식수 음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므로 서초 약수터를 방문했을시 이 검사 결과 여부를 체크하고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호젓한 산길을 따라 걸어본다. 오른쪽으로 고층 아파트 숲이 보인다. 좁다란 산길에는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매트가 깔려 있어 한결 산책의 운치를 더한다. 조금 걷다 보니 널따란 공터에 체험장 같은 것이 나타난다. 마치 원시인들이 거주하다 금세 사냥을 떠난 듯한 흔적이 반갑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체

험을 위해 이곳 공터에서 놀이를 즐긴다고 한다. 서초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선택받은 아이들이다.

예술의 전당 쪽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아쿠아 아트 육교가 눈에 보인다. 마침 물이 쏟아지는 시간대다. 건너편에서 한 행인이 육교를 건너 물이 흐르는 커다란 둥근 원으로 들어온다. 이 아쿠아 아트 육교는 현재 주한 프랑스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이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것이다. 아파트라는 대표적인 도시 건축물과 숲을 이어주는 육교를 설계하면서 물이 쏟아지게 설계한 창의력이 새롭다. 2003년 10월 공사를 시작해 일 년 간의 공사를 거쳐 2004년 10월에 완공된 후, 서초가 자랑하는 건축물로 사랑받고 있다.

2011년 7월 27일에 내린 집중 호우로 우면산 일부분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다. 자연과 가깝게 살면서 지나친 개발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했던 일이었다. 그 산사태로 일부 사상자가 발생했고 예술의 전당에도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기도 했다. 그 후 산사태를 수습하며 그 상처를 잊지 않도록 산에 비석도 세워져 있다.

비석은 세 갈래 방향으로 갈라지는 이정표 바로 전에 세워져 있다. 한쪽은 양재, 다른 쪽은 사당으로 향하는 길이다. 사당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대성사로 오르는 호젓한 산길이 나온다. 얕은 산길이지만 운동량이 부족한 이들이라면 충분히 헉헉 거릴만하다. 나 역시 흐르는 땀과 가파른 호흡이 운동부족임을 여실하게 느끼게 해 준다.



대성사는 백제 384년 침류왕 원년에 인도의 고승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먼 동쪽 나라 한반도 한성까지 들어왔다 극심한 풍토병을 앓게 되고 궁에서 보살핌을 받다가 이곳 우면산의 물을 마시고는 병이 완쾌됐다고 전해진다. 마라난타가 이후 우면산 터에 대성초당을 짓고 출가한 백제인 10여 명과 함께 이곳 대성초당에서 학업에 정진했다고 하는데 대성사는 대성초당의 터에 새롭게 지어진 사찰인 셈이다.

이후 일제 강점기 때 3·1독립운동에 불교계 대표로 대성사의 용성 스님이 참가하면서 일본 총독부의 탄압을 받고 대성사가 일부 소실됐고 뒤 이어 한국전쟁에서 그나마 남은 사찰이 소실되면서 지금의 대성사는 1954년에 신축됐다.

대성사 이정표를 따라 올라가면 소망탑이 나오고 서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온다. 미세먼지 없이 화창한 날이면 강북까지 한눈에 구비구비 볼 수 있는 천혜의 전망대다. 이곳 대성사 뒤로는 공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안타깝지만 더 이상의 등반은 불가능하다.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서초 약수터 입구에서 시작한 우면산 둘레길 산책은 예술의 전당으로 내려오기까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도심에서 잠깐 벗어나 깊은 산속을 산책하다 막 도심으로 다시 도착한 듯한 편리함이 매일 이 길을 걷고 싶다는 욕망을 솟구치게 한다.

1시간의 짧은 산책길, 자연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온 행복한 시간이었다.



서초마을 / 숲길

구룡산 둘레길

전망 뛰어난 서초의 산소 탱크



교통량 많기로 소문난 양재대로 옆,
비밀스럽게 오솔길을 따라 들어가면 곧장
구룡산 구간의 둘레길의 푸른 숲길로 이어진다.
신선한 숲의 향기를 맡으며 걸을 수 있는
혜택 받은 주거 환경은 서초의 자산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구룡산이며 우면산 숲길을 걸어보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혜택 받고 있는 이들은
부지런하게 누려야하는 것이 의무다.

서초의 산소 탱크라 할 구룡산은 서울 둘레길 157km 중 4코스의 한 구간에 위치해 있다. 사당역에서 수서역까지의 총 17.8km 코스로 구성된 서울 둘레길 4코스 구간 중 구룡산에서 시작해 대모산으로 이어지며 4코스의 절반 정도 길이다.

구룡산을 오르는 입구는 다양하다. 서초구 헌릉로 코이카 글로벌 인재교육원에서 진입하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염곡마을에서도 진입하는 입구가 있다. 이곳 입구는 마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호젓한 코스를 좋아하는 등산객들에게도 소문이 나서 주말이면 이곳 진입로를 통해 오르는 울긋불긋 등산객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기도 하다.

또한 양재대로를 동쪽을 향해 가다 보면 구룡산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양재대로 사이사이로도 근처 거주 주민들만 알 수 있는 사잇길이 꽤 있다. 남부순환로에 접해 있어 진입로가 남부순환로 대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우면산처럼 말이다.

구룡산은 306m의 비교적 낮은 산이지만 평지에서부터 완만하게 산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초입부터 가파르게 시작된다. 이러다 보니 낮은 높이의 산이지만 이곳을 오르다 보면 요즘 말로 '산린이'들은 숨을 헐떡이게 된다. 운동량이 꽤 많은 셈이다. '산린이'란 '산'+'어린이'의 조어란다. 구룡산에서 시작해 구룡산 정상과 대모산을 거쳐 수서역으로 내려오는 코스는 '산린이'들 같은 초보 등산인에게 아주 적합한 장소임이 틀림없다.

한참 비가 쏟아지던 7월과 8월에 통 숲길을 걷지 못하다 오랜만에 구룡산 둘레길을 걷기로 하고 진입로를 찾아 염곡마을을 헤매고 다녔다. 서초구 주택가 중에서도 가

구룡산 둘레길

위치 및 코스
서초구 헌릉로 15-18에 위치한 코이카(KOICA)글로벌 인재교육원에서 진입하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염곡마을에서 진입할 수도 있고 양재대로 오른쪽 텃밭길로 진입하기도 한다.
국수봉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서초의 경관이 예술이다. 구룡산 정상을 찍고 대모산 쪽으로 하산 코스를 잡아 개포동이나 더 멀리는 수서역까지 걸을 수 있다.

장 호젓하고 마치 전원에서 사는 듯한 전원주택 단지다. 도시농부 텃밭임을 알리는 팻말들도 보인다.

오래된 양옥과 건축사무소에서 최근에 설계했을법한 근사한 주택들이 공존하는 염곡마을 뒷길에서 구룡산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를 찾았다. 진입로를 오르자마자 계단으로 이어진다. 씩씩거리며 계단과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니 이마에 땀이 흐르며 '이 산 생각보다 힘드네' 생각이 절로 난다. 나의 신체들 하나하나가 그동안 못했던 걷기 운동을 오늘 몰아서 할 모양이라고 자기들끼리 신호를 주고받고 난리가 난 모양새다.

앞에서 기다려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선배를 따라 오르다 보니 어느새 284m 높이의 국수봉에 도달했다. 여기서 내려다보이는 서초와 강남 전경이 예술이다. 국수봉 전망대는 예전 봉화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이를 알리는 표지석 하나 없이 훌륭한 전망만 자랑하고 있다.

이곳 국수봉에서 서초를 바라보며 전경을 감상하다 보니 양재천의 물길이며 서초구청, 우면산 자락에 앉은 리본타워 아파트들까지 선명하게 보인다. 새삼 서초가 광활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멀리는 한강 물길을 따라 반포대교, 동작대교, 한강대교에 여의도 63빌딩까지 가리개 없이 한눈에 확 들어온다. 서울시내 전경을 보기에 최고의 전망대라는 세간의 평판이 이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국수봉에서 잠시 노닥거리다 다시 구룡산 정상을 향해 출발한다. 22m만 더 가면 된다니 금세 도달할 수 있겠지? 발걸음이 가볍다. 아니 근데 산길 22m는 왜 이리 멀지? 한참을 터벅거리고 올랐더니 마침내 구룡산 정상의 헬리콥터 착륙장 표시인 H 신호가 눈에 보인다.

구룡산 정상부터는 행정구역상으로 강남구로 들어간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는 대모산 쪽으로 내려가기 위해 하산(?)을 시작했다. 하산이라고 하기엔 쑥스럽지만 그래도 충분히 내 몸 상태를 생각해보면 등산은 등산이니라. 내려가는 길도 쉽지 않았다.

도심 바로 옆 대로변에서 곧장 푸른 숲길이 이어져 신선한 숲의 향기를 맡으며 걸을 수 있다는 혜택 받은 주거 환경은 최대한 누려야 한다. 서초에 살면서 쉴 때마다 아니 시간이 날 때마다 구룡산이며 우면산 숲길 등을 걸어야 하는 건 혜택 받은 이들이 의무다. 특히나 이런 코로나 정국에서는 모이지 말고 숲길을 걸으며 바이러스에 지친 내 몸과 마음을 힐링할 필요가 있다.

당장 일어나 서초의 푸른 숲길을 걸어보자.



서초마을 / 글길

피천득 산책로

못다 한 우리의 산책은 계속되리니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국민 수필이라 할 피천득 선생의 '인연'이다.
인연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물이나 공간 역시
사연으로 저장되고 사연은 인연으로 확장된다.
반포천 둑길 피천득 산책로를 걸으며 닿지 못한 인연을 되새겨본다.

시인이자 수필가인 피천득(1910~2007년) 선생. 선생은 1980년부터 작고하던 해인 2007년까지 서초구 반포 주공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반포천 둑길을 즐겨 걸으며 사색했다고 한다. 이런 인연으로 서초구는 지난 2018년 반포천 둑길을 정비해 시민들의 산책길로 조성하면서 이곳을 '피천득 산책로'로 이름 짓고 선생의 청동좌상 설치 및 조형물 선정, 석판에 새길 작품 선정에 이르기까지 피천득 선생의 유족과 제자로 구성된 '금아 피천득 선생 기념회'와 함께 협의해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천득 산책로' 이정표가 서있는 입구를 지나면 높이 2.2m의 '인연'과 '이 순간'이라는 대형 책 조형물이 눈에 띈다. 이곳에는 반포천에서 산책을 즐기며 휴식을 취했던 선생을 형상화한 청동 좌상이 조성돼 있다.



피천득 산책로

위치
고속터미널 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시작. 길이 끝나는 이수 교차로까지 1.7km에 이르는 산책 코스

이곳에 설치된 '인연' 조형물에 걸터앉으면 바로 옆에서 피천득 선생이 말을 걸어오는 듯하다. 이미 작고하셨지만 마치 작가와 함께 벤치에 걸터앉아 사진을 찍는 기분을 한껏 내볼 수 있다. 옆에 위치한 '이 순간' 조형물 바로 앞 바닥에는 흙으로 덮인 석판에 글이 새겨져 있다.



이 순간 내가 별들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얼마나 화려한 사실인가
오래지 않아 내 귀가 흙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제9교향곡을 듣는다는 것은
그 얼마나 찬란한 사실인가
그들이 나를 잊고 내 기억 속에서 그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즐거운 사실인가
두뇌가 기능을 멈추고 내 손이 썩어 가는 때가 오더라도
이 순간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허무도 어찌하지 못할 사실이다.

첫 조형물이 등장하는 곳부터 10m 간격으로 피천득 선생의 대표작들이 벤치 등받이와 석판에 각각 소개돼 있다. 벤치 등받이에는 순서대로 종달새 / 오월 / 치옹 / 장수가 새겨져 있고 벤치 앞쪽 석판에는 백날애기 / 너는 이제 / 꽃씨와 도둑 / 축복이 새겨져 있어 길을 걷던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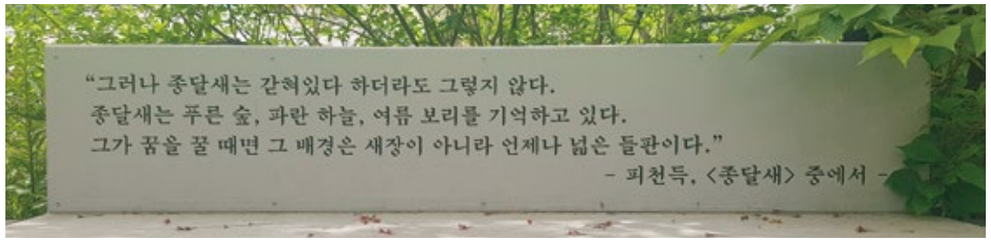
한편 이 산책길은 다양한 봄꽃으로 가득해 봄에 걸으면 화려함이 더욱 돋보인다. 2018년 7월 공개된 후, 지난해인 2019년도 봄에는 먼 곳에서부터 이 길을 걷기 위해 사람들이 방문했을 만큼 비밀스러운 산책길로 소문이 자자하다.

고속터미널 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시작되며 길이 끝나는 이수 교차로까지 1.7km에 이르는 산책코스를 5개의 구역으로 나눠 2만 7천여 그루의 꽃나무들을 조성해, 다양한 꽃을 감상할 수 있다. 구청이 밝힌 꽃나무 수종은 다음과 같다.

- **'철쭉원'** 고속터미널에서 반포 1교 지점
- **'조팝원 및 야생초 화원'** 반포 1교에서 반포 종합운동장 주변 산책로
- **'수국원'** 반포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반포교 사이
- **황매화와 명자나무** 반포교에서 이수 교차로 사이

개화시기가 다른 다양한 꽃을 심어 3월부터 4월까지 이곳 산책로는 봄꽃 향기 날리는 산책코스로 서초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올해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한창 봄꽃이 만개했을 때 주말에는 폐쇄되기도 하고 주중 역시 마스크를 쓰고 간격을 지켜야 하는 등 활짝 핀 봄꽃을 맘 놓고 고즈넉하게 즐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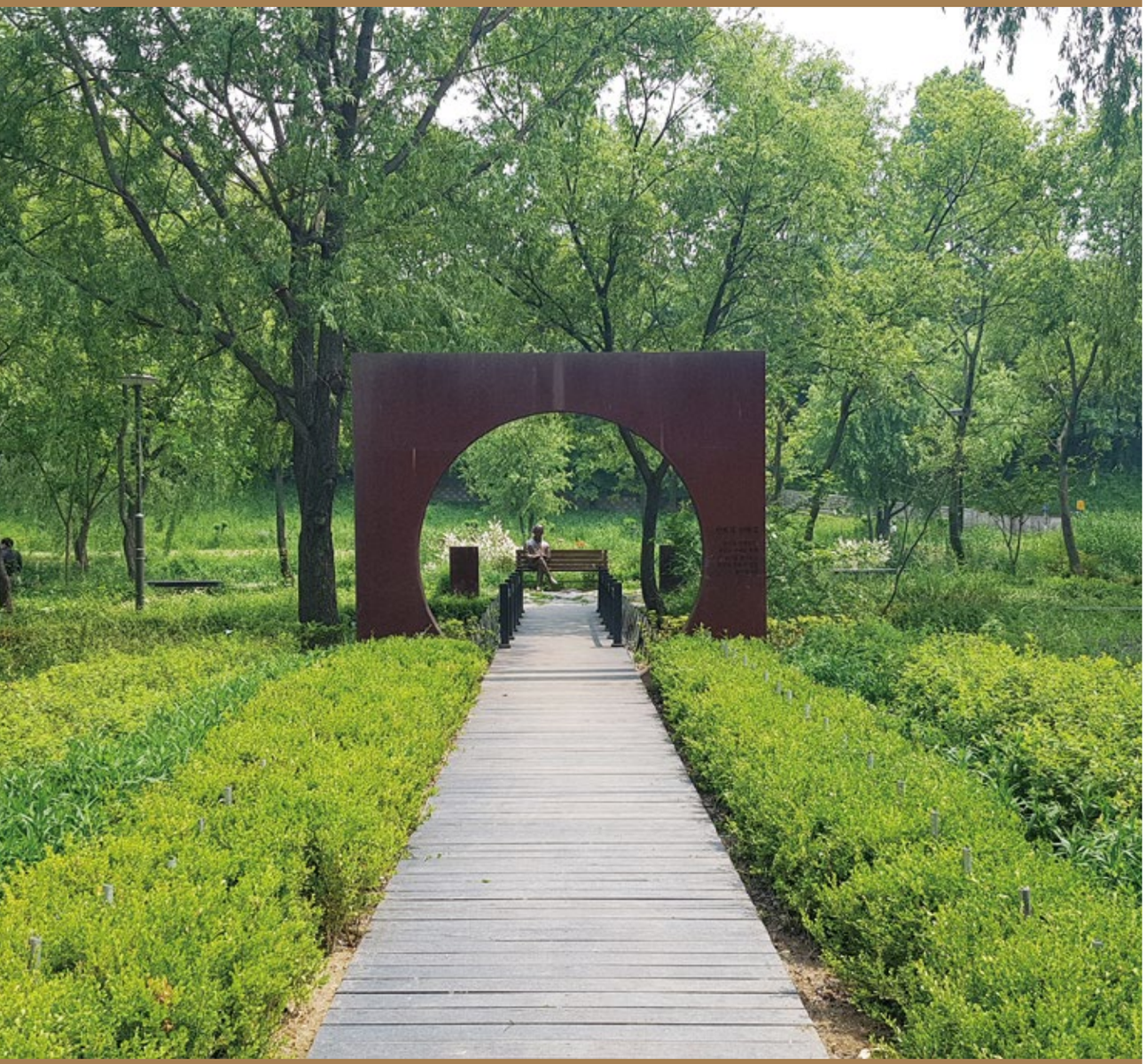
이렇게 2020년 대신,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어떠하리. 봄에 걸으면 그것대로 여름에 걸으면 또 여름의 정취 대로, 그리고 가을에 걸으면 떨어지는 나뭇잎 사이로 우리의 산책은 계속되리니.





서초마을
/
글길

칸트의 길
사색의 공간



양재천 가운데 작은 섬에는 철학자 칸트를 테마로 한 산책길이 있다.
이 길 입구에 놓인 벤치 좌우에는 칸트가 남긴 명언이 새겨져 있다.

'행복의 원칙은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

사색 깊은 철학자의 행복론이라 하기에는 너무 평범하다.

양재천의 하천 퇴적물이 쌓여 생긴 이 작은 섬에 철학자 칸트를 테마로 한 산책길이 있다. 지난 2017년 조성된 공간으로 '사색의 문'으로 불리는 부식 공법 철제문을 지나 작은 목조 다리를 건너면 바로 칸트의 길 산책로가 나온다.

산책로 작은 숲 속 길 곳곳에 만들어진 나무 벤치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볼 수도 있고 원형으로 만든 나무 데크에 누우면 나뭇잎에 가려진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다. 매트를 깔고 요가를 하기에도, 가만히 눈감고 명상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원형 데크다.

칸트의 길

위치
양재천 영동 1교에서 영동 2교 방향으로 걸어 내려가다 보면 나오는 양재천 중앙 작은 섬



사실 독일의 철학자가 왠 양재천 산책길에 이름이 붙여지게 됐을까? 생뚱맞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벤치에 앉아 있는 칸트 청동상 옆 새겨진 문구를 읽다 보면 금세 이해하게 된다. 벤치 좌우에는 칸트가 남긴 명언이 새겨져 있다.

'행복의 원칙은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란 말을 남겼다고 한다. 사색 깊은 철학자의 행복론이라 하기에는 너무 평범하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파랑새를 따라 간, 산 넘어 먼 곳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걸 말이다. 그래서 소소한 일상이 중요하고 내 옆에 늘 있어주는 가족과 지인들이 중요하며 내게 맡겨진 일과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작은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칸트는 매일 산책을 하며 사색했다고 한다.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가만히 앉아 나를 되돌아보는 일은 '잠시 멈춤'을 넘어 나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격려해주는 힐링의 시간이다. 이렇게 산책을 하며 사색을 하는 것은 격조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 양재천 한복판 채 200평이 안 되는 작은 섬, 칸트의 산책길이 중요한 이유다.



지금은 주춤하지만 한때 젊은이들이 일본 교토로 여행을 많이 떠났다. 젊은이들의 교토 여행 코스에는 꼭 이곳이 추천되곤 했는데 바로 은각사 옆에 위치한 철학자의 길이다. '철학자의 길(哲学の道 데쓰가쿠노미치)'로 불리는 이 관광 코스는 일본의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가 이 길을 산책하면서 사색을 즐겼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길이다.

작은 마을을 흐르는 천 옆에 오래된 벚꽃나무들이 늘어서 있어 벚꽃이 만발하는 봄에 방문하면 벚꽃 잎이 눈처럼 날리는 말 그대로 운치 있는 길이다. 하지만 이곳에선 이제 사색을 할 수 없다. 관광객이 꽉 차서 길을 걷다가도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참 아이러니하다.

양재천 칸트의 산책길을 걸으며 문득 교토 철학자의 길이 떠오른 건 '본질에 충실하기'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산책길을 한 바퀴 돌고 오니 다시 들어오는 입구에 도달했다. 들어올 때는 입구 왼쪽에 세워진 행복이란 뭔가를 일깨우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 오른쪽에는 다른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한 가지 뜻을 세우고 그 길로 가라. 잘못도 있으리라, 실패도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 반드시 빛이 그대를 맞이할 것이다."

들어올 때 칸트의 행복론을 읽으며 짧은 단상에 잠기고, 나가면서 또 한 번 꿈과 미래에 대해 생각에 잠긴다. 양재천 산책로 쪽으로 나와 잠깐 흐르는 물을 바라다본다. 두 아이가 물을 건너기 위해 디딤돌을 차근차근 건너고 있다. 아이가 물에 빠질까 손을 다정스레 잡아주는 아빠의 모습이 보인다. 작은 일상의 행복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아니 모른다 해도 상관없을 듯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게 작은 미소가 퍼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니 말이다.



서초마을
/
손길

방배 사이길

한 박자 쉼이 있는 곳







서초구 방배로 42길에서 그 이름이 착안됐다는 방배 사이길은
느린 발걸음으로 걸어도 채 10분이 안 걸리는 짧은 길이다.
사이길 처음부터 끝까지 걸으면 한 300m쯤 될까?
짧은 길이지만 느릿하게 걸으며
심호흡하게 해주는 호기심 가득한 거리다.

처음 방배 사이길을 찾아갔을 땐 마을버스를 타고 서초구민 체육센터에서 내려 삼호아파트를 끼고 돌았다. 곧이어 '42 방배사이길' 초록색 잔디 위에 강조된 노란색 숫자 42가 눈길을 끈다.

도로명 주소 서초구 방배로 42길에서 착안했다는 이 길의 첫 인상은 어디선가 작은 이야기들이 소곤소곤 들려 올 듯한 아기자기함이다. 근사한 외풍을 자랑하는 카페와 도심의 건물들은 그만두고라도 고층 빌딩 하나 없어 숍들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여질 만큼 단출하다.

한적한 골목이다 보니 입구부터 천천히 간판을 읽으며 걸으면 여유롭기 그지없다. 지명에서 착안한 카페 '사이로'를 선두로 다소 원색적인 간판의 '뚱 쿠키 마카롱',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space um', 헤어숍과 패션 뷰틱숍, 요가 및 아트 스튜디오 등이 있다. 부동산, 세탁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점들이 낯설어 보이기까지 하다.

방배 사이길

주소
서초구 방배로 42길

현황
카페, 갤러리, 요가 및 아트 스튜디오, 패션 및 헤어숍, 목공예 공방, 도자기 공방, 쥬얼리 공방 등의 핸드 크래프트 전문점이 모여 있다.



2층의 자리한 연기 학원들과 유럽 골목을 연상케 하는 엔틱한 작은 공방들과 갤러리들이 함지박 사거리까지 이어진다. 중간중간 카페는 덤이다. 느린 발걸음으로 채 10분도 안 되는 300m쯤 되는 짧은 거리를 긴 걸음으로 걷게 되는 독특한 거리다.

입소문 타다 보면 넘쳐 나는 인파는 덤일 텐데, 이 거리에 들어서니 지나친 한가로움이 들어 호기심에 매장 내부를 자세히 관찰하게 된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제품 공방과 강좌를 진행하는 아뜰리에들이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과 취미 생활을 즐기는 성인, 주부 등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한적한 거리로 나른한 듯 싶지만 서초 골목 구석구석이 문화의 향기로 변신하는 '서리풀 페스티벌축제' 때는 주민들의 주최로 '방배 마실 콘서트' 거리공연과 아카데미강좌, 독립영화상영,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려 이 골목을 활기차게 변모시킨다.

그중 '방배 사이 공방체험'은 소소한 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방들이 저마다 가게 문을 열고 공예를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다. 이를 통해 예술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잠재적 예술가를 발굴해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부모 손에 이끌려 마실 나온 아이들과 몰려든 사람들이 다양한 공방체험과 소소하고 즐거운 볼거리, 먹을거리 가득 찬 활력 넘치는 거리로 변신한다. 때로는 골목 전체가 예술 장터로 변신하는 이색적 이벤트도 열려 작가들의 혼이 밴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착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지리적으로 서울 내 프랑스인들의 절반 이상이 거주한다는 서래마을과 방배동 카페골목 사이에서 제 몫의 색깔을 분명히 해내고 있다. 닫힌 가게 문 사이로 흘러 나오는 작품에 몰두한 작가들의 저력이 느껴지는 듯하다. 그러기에 지명처럼 사이길 특색을 살린 사이사이 다양하고 예술성 넘치는 호기심의 거리이다.

무심히 지나칠 짧은 거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알게 되면 다시 찾아오게 되는 매력이 존재하는 곳. 바쁜 현실을 잠시 내려놓고 느리게 걸어보는 길. 방배 사이길은 한 박자 쉬어가는 쉼이 있는 그런 곳이다.







서초마을
/
손길

악기거리

클래식 선율과 낭만이 흐른다



거리의 전봇대 높이 걸린 오선지 위 악기들이
행인들의 시선을 잡아 끈다.
공원 한쪽에서는 공연 때 입었던 무대복이나 소품을 팔기도 하고
중고 악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벼룩시장도 눈길을 끈다.
악기점 앞에서는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 등 수준 높은 공연이 열려
길을 걷는 이들에게 단비같은 휴식을 주는 곳,
서초구의 대표 자랑거리인 악기거리의 모습이다.

남부순환로 317길로 들어서면 전봇대 높이 걸린 오선지 위 악기들이 경쾌하게 반긴다. 이곳에서 20년째 부동산을 하고 있다는 사장님께 조언을 구했다.

우리나라의 악기상은 낙원상가가 대표적인데 주로 타악기를 판매하는 그곳과는 달리 서초동에서는 바이올린 등 현악기가 주류를 이룬다. 1988년 예술의 전당에 서예관과 음악당이 준공되고 한국예술 종합학교 음악원과 무용원이 이전해오면서 이곳에 하나둘씩 악기상들이 이전을 해오면서 거리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바이올린이 즐비하게 진열된 상점인 현대음악사로 들어선다. 주된 구매층은 지방 악기 도매상이라는데 판매와 대여, 수리를 하면서 연습실을 겸하고 있다. 주로 저렴한 가격의 방과 후 학습용 바이올린이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악기거리

주소
서초구 남부순환로 317길

현황
1988년 예술의 전당에 서예관과 음악당이 준공되고 한국예술 종합학교 음악원과 무용원이 이전해오면서 악기상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 형성됨. 현재 약 500곳의 악기상 및 악기 관련 상점들이 영업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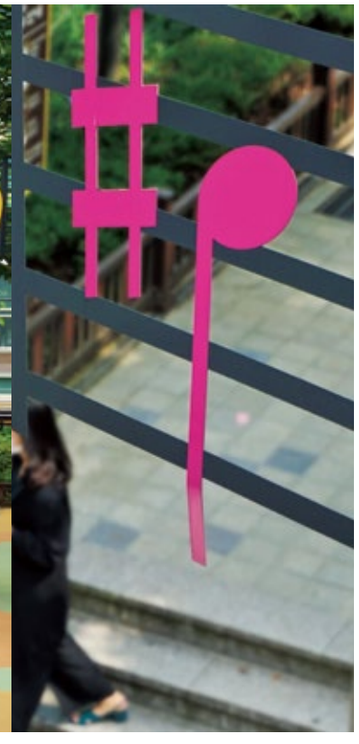
바늘과 실처럼 판매되는 악기들과 수리점. 부속물을 파는 가게(소품, 악기 명패 등) 연주회용 무대복을 파는 상점.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연습실 등 '스트링' 악기사의 사장님 말씀처럼 한 집 걸러, 한 곳은 악기와 연결된 상점들로 빼곡히 들어서 있다.

'악기거리' 팻말이 걸려있는 신중 어린이공원을 지나다 이곳에서 삼십 년을 거주했다는 동네 터줏대감 최홍구 님과 대화를 나눴다.

"신중 어린이공원에선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규모의 공연들이 끊이지 않는다. 지역주민 문화센터의 기타 연주, 신중초 오케스트라 연주, 한예종이 참여하는 이벤트, 오카리나, 플루트, 하모니카 등 각종 악기들의 연주와 악기점 앞에서 열리는 피아노, 바이올린 소공연 등도 종종 있다"

수준 높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럴 때면 공원 한쪽에서 공연 때 입었던 무대복이나 소품을 팔기도 하고 중고 악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중고거래 벼룩시장도 서는 등 쏠쏠한 볼거리가 이 거리의 자랑이다.





세운상가, 청담동 등에서 이주한 악기상들이 입주하면서 동네에 상권이 형성되었다며 가장 오래된 악기상으로 '코스모스 악기'를 꼽았다. 내친 김에 위풍 있는 건물을 자랑하는 '코스모스 악기'를 찾아갔다.

9층에 자리 잡은 이 악기상은 '예술의 전당'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장관이다. 코스모스 악기는 1970년대 명동의 코스모스 백화점 악기부에서 시작하여 1998년 악기거리로 이주한 명성의 가게로 48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전공자는 물론 동호인들이 취미로 즐기는 아코디언, 색소폰, 드럼 등에 대한 구매가 높으며 요즘은 집에서 즐기는 나홀로족들의 악기 판매가 느는 추세라고 한다.

건물 지하 홀에서는 젊은 음악인들이 콘서트를 열거나 스타인웨이 콩쿠르 대회도 개최된다. '코스모스 악기'는 아티스트를 위한 후원을 하는 것은 물론 연습실까지 겸비한 스튜디오 역할도 하고 있다.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분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거리에서 음악에 종사하는 업체는 대략 500여 곳이 되는데 악기거리 건너 길에도 이에 관계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만큼 다양성과 규모에 있어 외국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사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바쁜 일 처리하고 삼십 분 내 돌아오시겠다는 동네 주민분을 기다리며 비치돼 있던 음악에 관련된 이야기가 실린 신문을 읽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파리 뒷골목 어느 계단에 앉아있는 주인공 앞에 복고풍 차량이 도착하여 중세시대로의 초대를 받게 된다. 그곳에서 역사적 예술가들을 만나 파티와 이야기로 밤을 보내고 동이 트면 현실로 복귀하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왠지 이 거리에선 이뤄질 것 같은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실제 이벤트가 있을 때는 모차르트나 바흐를 연상케 하는 코스튬을 입고 인파를 누비고 다니며 걸어다니는 포토존들도 등장한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악기는 이구동성으로 'Old(오래된) 악기'라고 한다.

전봇대 위 오선지에 저마다의 악기가 걸린 로맨틱 넘치는 거리를 걷다 보니 일상을 잊고 이 길을 계속 걷고 싶은 즐거움에 빠져들게 된다. 서초구에서 No.1 관광코스로 이곳, 대성사—예술의전당—국립음악원 국악박물관—악기거리를 꼽는 이유가 다 있었다.

서초마을
/
손길

길마중길

숲과 예술의 조화 이룬 산책 코스



서초구의 주요 아파트 벨트를 옆에 끼고 쭉 이어진 길마중길은
점심시간에는 인근 직장인이, 이른 새벽부터는
주민들이 산책하는 서초구의 산책코스 중 하나다.

키 큰 나무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와
적당히 햇살을 가려주는 그늘, 여름이면 매미가 나무에서 울고
쉴새 없이 새들이 상쾌한 소리로 짹짹거리며 날아다니는 곳.
여기에 명화를 떠올리는 어반 캔버스와 포토 갤러리까지.
주민들이 걸으며 쉬며 예술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곳이다.

서초IC — 길마중 1교 — 길마중2교 — 길마중3교 — 반포IC — 잠원IC — 신사동 굴다리로 이어지는 길마중길의 전체 구간은 총 4km. 체중이 70kg인 사람이 전체 구간 4km를 45분(6천보 기준)에 이동한다면 313kcal를 소모할 수 있는 거리다. 이 구간을 왕복 이동한다면 하루 만보 걷기는 일단 후딱 넘기게 될 수 있는 셈이다.

이 지역은 경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끼고 고속도로 주위의 시끄럽고 복잡한 환경으로 인해 오랜 시간 민원이 발생했던 곳이다. 소음을 호소하는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진정과 관계 기관의 대화로 고속도로 옆에 방음벽이 세워졌고 서초구청의 도시 계획으로 방음벽과 아파트 단지 사이의 사잇길이 친환경적인 생태 산책길로 탈바꿈됐다. 이제는 서초구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친환경 산책길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길마중길

위치
서초구청 건너편, 한전 문화센터 인근 입구에서 시작

주소
청계산부터 반포나루까지 연결돼있는 푸른 산책길 중 청계산 출발 기준, 서초IC에서 시작해 반포IC를 거쳐 잠원IC와 신사동 굴다리까지의 산책로. 중간에 어반 캔버스와 포토 갤러리를 운영해 산책과 함께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한 주민친화적 산책 코스다.

길마중길은 입구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이 길을 즐기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서초IC 입구 근처 한전문화센터 인근의 길마중길 출입구에는 테이크 아웃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삼삼오오 산책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서초구청과 국립외교원 등의 정부 기관과 근처 직장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오피스 타운 중심에 길마중길 입구가 있어 직장인들에게 빌딩 숲 속의 작은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 길을 가장 많이 애용하는 이들은 뭐니뭐니해도 이 지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다. 한전문화센터 인근 출입구부터 차례대로 나타나는 아파트 숲들은 이곳 서초구의 주요 아파트 벨트이기도 하다.

동원베네스트 — 벽산 불루밍 — 현대 아이파크 — 신동아아파트 — 진흥아파트 —

롯데캐슬 — 푸르지오 써밋 — 레미안 아파트로 이어지는 아파트 벨트는 숲과 조화를 이뤄 생태 도시를 지향하는 서초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길을 한번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서초구의 으뜸 주거 환경을 느낄 수 있어 주민들에게는 천혜의 주거환경을, 인근 직장인에게는 숨은 보물창고를 매일 만나는 듯 훌륭한 근린환경을 제공하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키 높은 나무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와 적당히 햇살을 가려주는 그늘, 여름이면 매미가 나무에서 울고 쉴새없이 새들이 상쾌한 소리로 짹짹거리며 날아다닌다.

운동시설만 곳곳에 설치돼있던 길마중길에 독특한 명화 갤러리 코너가 신설됐다. 어반 캔버스로 불리는 이곳에는 르노아르의 '두 자매'를 비롯, 빈센트 반 고흐의 '아를루의 포름 광장 카페 테라스' 조르주 피에르 쇠라의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를 프린트해 명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보는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했다.

어반 캔버스 코너를 지나면 야외 이동식 전시 부스인 '포켓 갤러리'가 설치돼있다. '2019 서초 청년 디자인캠프'에 참가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설치하여 서초주민들의 일상생활 가까이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전시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두꺼운 친환경 야자매트를 따라 오래 걸어도 발이 불편하지 않도록 단장해놓은 길마중길. 이 길을 걷다 보면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하고 즐거워지는 또 하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길마중길은 서초구의 복잡한 교통체증을 도로 위 다리로 가로질러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길마중길을 걷다가 중간중간 다리를 통해 도로를 내려서면 교통 체증에 시달리는 길 한복판으로 뚝~ 떨어지면서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빠른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약속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 도우미 역할을 하는 길마중길의 연결 코스를 살펴보자.

- **길마중길 — 서초3교 다리**(안내 표지판에는 길마중 1교)에서
  도로로 내리면 바로 남부 터미널역과 뱅뱅사거리 방향
- **길마중길 — 서초2교 다리**(안내 표지판에는 길마중 2교)에서
  도로로 내리면 서울교대 사거리 방면과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 방향
- **길마중길 — 서초1교 다리**(안내 표지판에는 길마중 3교)에서
  도로로 내리면 강남역 방향
- **길마중길 — 반포IC 다리**로 나가면
  KCC사옥과 9호선 신논현역으로 도보 이동 가능







3.
서초나비마을넷 사람들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농부가 흘리는 땀은 값지다.

비록 지금은 비옥하지 않아도 언젠가 찰진 땅이 되리라.

마을공동체가 이제 막 싹을 띄우고 있는 서초에서
기꺼이 땅을 개간하고 물을 주며 씨앗을 심어왔던
서초나비마을넷 사람들을 소개한다.

마을, 부모와 자녀를 잇다

서초에 활동가가 전무하던 시절, 첫 삽을 뜨고 토양을 다졌던 활동가를 만났다. 시작은 자녀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였으나 여기에서부터 서초마을의 공동체 문화가 조금씩 자리잡기 시작했다.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마을 계획단 업무를 추진하는 등 씨앗 역할을 톡톡히 해낸 서초나비마을넷 멤버를 만났다.



오영숙 (전)서초나비마을넷 대표

마을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직장을 퇴사하고 육아에 집중하면서 막내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서울시가 재정 교육 컨설팅을 지원해 주어 외부 활동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지요.

첫 마을 활동이 무엇이었나?

2012년에 매헌 초등학교 어머니회 활동을 통해 또래 친구와 학부모들 간의 교류 등을 통한 공동체 활동에서 시작했죠. 또 그 이듬해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 지원센터가 지원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찾아가는 마을 강좌'를 신청 했어요. 주민 10여명 이상이 모여 신청을 하면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 센터에서 주민들을 직접 찾아와 강의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공동체 활동이 많이 부족했던 서초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강좌를 많이 열고 도움을 받았죠.

마을 활동가로서 활동 이력을 소개해주세요.

2015년에 처음으로 이웃 만들기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웃 셋이 모여 같은 꿈을 꾸면 마을이 변한다' 이 슬로건은 아직도 저를 가슴 뛰게 합니다. 서울시 주민 제안사업으로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 이웃과 긴밀하게 지내게 된 기회가 된 첫 번째 활동이었습니다. 이후에 서울시의 다양한 마을활동 및 교육에 참가했죠. 그때는 서초에서 이런 분야의 활동이 전무했던 때였죠.

예를 들어 마을 지원 활동가 교육 수료를 한 후, 이웃 만들기 활동. 체험학습 공동체 활동으로는 세계의 음식문화 체험에 참여하는 이웃 만들기 활동 등을 조직 지원했던 것이죠. 이런 활동을 통해 서초구 마을 공동체의 기반이 조금씩 다져졌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제가 지원했던 글로벌 자매 마을 공동체팀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공동체 활동의 역량 강화가 되면서 이중 언어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등 결혼으로 이주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도 도와주게 된 것이죠.

서초나비마을넷 창립 과정은 어땠나요?

서초나비마을넷은 2016년에 창립됐습니다. 주민 100명의 신청을 받아 비영리 민간단체로 활동을 첫 시작한 것이죠. 2014년부터 서초마을 네트워크로 주민 모임을 한 지 2년만에 의기투합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서초나비마을넷의 창립이 서초마을 공동체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 2017년부터 서초마을생태계 지원단을 위탁받아 꾸준히 서초의 마을 공동체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때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재2동의 마을 계획단으로도 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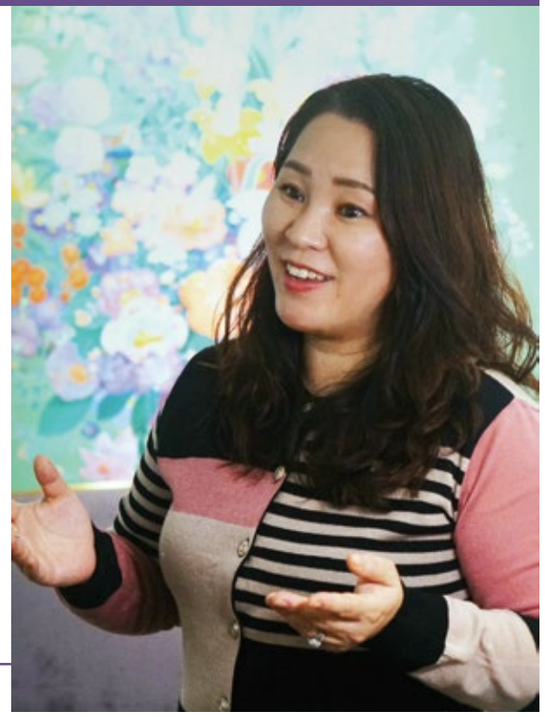
서초나비마을넷 대표로 있을 때 양재2동에 마을 계획단이 설립되면서 양재동에서 일할 사람을 찾게 됐죠. 제가 양재동에서 25년을 살아온 사람인데다가 양재동에서 마을 지원 활동가를 하고 있었으니까 행정의 입장에서는 아마 딱 적임자였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권유가 왔을 때 사실 마을공동체 정책의 이해를 위해서 관에서 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후 양재2동 마을 계획단의 계획담당자로 임용돼 서초나비마을넷 대표를 내려놓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마을 전문 사업가로 근무하면서 자원조사와 분과별 의제 발굴, 마을 총회 기획 등 주민자치 전 단계에 필요한 조사 등을 마쳤습니다. 아마도 양재2동에서 마을총회는 하반기에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선정된 의제를 공유,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의제 선정을 하고 하반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플랜이 확립됐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시행 여부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서초구의 마을지원활동가 1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마을활동을 함께 할 때 기본적 지향점이 같고 공통의 가치가 있어야 일의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커서 갈등을 빚는 일은 개인적 상처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을 활동에서 피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급속하게 비대면 사회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로컬에서 적극적으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필요하고 이 역할을 마을 지원 활동가들이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과 사람을 잇다

서초마을의 공동체 생태계를 지원하는 중간조직을 이끌고 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존중과 신뢰로 마을공동체 일을 협업하는 마음, 이것이 활동가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이라고 생각한다. 돌고 돌아 보니 마을 활동도 '결국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김혜옥 (현)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 단장 / (전)서초나비마을넷 대표

마을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면동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오면서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때 학부모 대상으로 열렸던 강좌에 참가하여 다른 학부모들과 친해지게 됐는데 '우솔마을학교'라는 모임에 회계 업무를 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서초의 마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개인적인 교류를 하고 이사를 와서 낯선 곳에 정착하며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나'가 아닌 '우리' 그리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생각하며 자발적인 리더쉽이 내면에서 뿜어져(?)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이웃과 어울려 사는 방법을 고민하며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될 때쯤 찾아가는 마을 상담원으로 활동하시던 조진영 선생님을 이웃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첫 마을 활동이 무엇이었나?

첫 번째로는 손재주가 많던 모임의 대표분이 천연 화장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재능기부를 했고 아파트의 주민 카페 공간을 활용하여 요가와 라인 댄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단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죠. 요가와 라인 댄스 프로그램은 너무 인기가 많아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할 정도로 많은 입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던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 공간인 주민 카페 공간 활용에 대해 다양한 견해 차이로 인한 아파트 주민간의 갈등을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죠.
그리고나선 이웃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소규모 모임을 갖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게 있어 2014년은 삶의 활력을 찾으며 마을 공동체 활동에 눈뜨고 사랑에 빠져 열정을 쏟아냈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활동가는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

마을 활동가의 역할은 공공성을 지닌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체 리더나 단체를 발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을 연계해줘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 간에 대한 존중과 신뢰로 협업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마을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보람이 있다면?

마을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와 불만, 불통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사실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체처럼 단단한 네트워크라기 보다는 느슨한 네트워크 조직이다 보니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합의를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면 무엇인가 매일 모여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느슨한 조직체의 친목 모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부정적으로만 보던 사람들이 마을 축제나 작은 도서관 개관행사를 통해 마음을 열어주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 마을 축제에서 본인이 주체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생겨 고맙다는 말까지 해주실 때에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마을 활동에 대해 방향이 있다면?

현재 서초구에서 활약했던 마을 활동 주체들은 40~50대 주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학교,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대안을 만들어 보려 활동했던 것이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연령대도 편중되지 않도록 청년 세대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관심이 가는 문제들이 있다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생활이 달라지며 온라인 수업과 미디어 활용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미디어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며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학습을 적극적으로 조직해보려고 합니다. 그간 관심이 있긴 했지만 나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결국 코로나 19의 창궐도 지구의 기후 위기와 맥이 닿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직시하고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도록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잘 보존해 후손들이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마을, 상생을 말하다



양재동 말죽거리에서 구룡사 쪽으로 다리를 건너면 양재천 근린공원이 시작된다. 이곳 큰 길에서 오른편 골목으로 두 블록 들어가면 언남 11길에 특별한 수제 디저트를 만드는 공방이 있다. 바로 예비 사회적 기업 BNBS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소하고 달달한 냄새가 따스하다. 현관에는 회사 간판 대신 색다른 그림 한 장이 붙어있다. 거대한 로봇이 청소년에게 마치 희망의 홀씨를 전달해주는 듯한 느낌의 만화 그림이다. 밝은 미소가 일품인 김은영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김은영 예비 사회적 기업 ㈜BNBS 대표

예비 사회적 기업 2년차라 알고 있다.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는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쇼콜라티에(Chocolatier) 공부를 했습니다. 공방을 차려 제품을 만들고 수강생을 모집해 강의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루는 친구가 '이번에 보육원에서 나오는 청소년이 있는데 초콜릿과 쿠키 만드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묻더군요. 늘 하는 일이라 도와줄 수 있다고 대답을 했죠. 이렇게 인연이 시작됐어요.
2018년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에 참가하면서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단기로는 40명, 중장기로는 19명의 청소년들에게 쇼콜라티에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토대로 현재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관련 학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기쁜 일이지요.

회사명 'BNBS'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요?

'Believe and be saved'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제 친정엄마가 암 투병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신앙을 갖게 됐죠. 신앙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입니다.



수강생 모집이 어려울 것 같은데…

서울시와 지역 주민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연결해주기도 하고 대안학교를 통해 지원하거나 저희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 직접 지원 받기도 합니다.

2년차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애로사항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제가 온갖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문서작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 인력과 시간의 소모가 상당합니다. 대부분이 1인 기업이나 많아야 2~3인인데 이런 일을 하느라고 실제 해야 하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참여하는 청소년들도 직업 교육이 아닌 사회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로 관계형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서 숙련된 인력자원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힘들 때는 그저 혼자 디저트 사업을 하면서 1~2명씩 가르칠 것을 공연히 사회적 영역으로 들어왔나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비 사회적 기업 3년차가 되는 내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또 달라지겠죠?



교육받는 청소년들
사진제공 - BNBS



교육받는 외국인근로자
사진제공 - BNBS

사이트를 보니 팽귄 회원 100명 모집이 목표이던데 잘 진행 되는지?

공간 자립을 위해 후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인들로 인연이 되어 실천 워크샵 회원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팽귄 회원은 꼭 돈으로만 후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곳에서 인턴쉽을 했던 친구가 뜻을 같이해 재능 후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친구도 팽귄 회원이죠.
기업회원도 있는데 사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할 수 없어서 기업이 '사랑의 열매'에 기부금을 입금하면 그곳에서 6개월에서 1년 후에 저희 BNBS에 입금해줍니다.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현재는 공방처럼 인터넷 주문으로 물량을 맞추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목표는 서초의 마을 활동가들과 연계하며 주민 접근성이 좋은 로드샵 디저트 카페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서초마을에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공동체가 함께 보듬었으면 합니다. 이들이 자존감을 키워 든든한 사회인으로 성장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Mini Interview 인턴사원 **장 ○ ○ (20)**

대안학교 졸업반입니다. 지난 2018년 학교에서 디저트 만드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콜릿 만들기를 좋아하는 학교 동아리 친구들 8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단기 2주 직업 탐색 과정을 시작으로 장기교육을 수료하고 지금은 인턴으로 활동 중입니다.
저는 원래 만드는 것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전에도 비누나 양초, 양말인형 등을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디저트 만드는 게 훨씬 재미있습니다. 선생님이 '잘 만든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저도 대학에서 관련 학과에서 더 공부하고 싶어 진학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마카롱
사진제공 - BNBS

서초나비마을넷 사람들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센터를 방문한 서초나비마을넷 회원들이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 사업에 대해 자문 및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 확보는 모든 마을활동가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서초나비마을넷
대표자 연혁

유양숙 2016년 9월 ~ 2017년 5월

- 서초나비마을넷 비영리민간단체 창립
- 서초구(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컨설턴트)
- 서초구(서울시 마을공동체 강사)
- 서울시 우리마을활동·공간 컨설턴트

오영숙 2017년 6월 ~ 2018년 5월

- 서초구(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컨설턴트)
- 서울시 주민모임연합사업 운영위원
- (전)양재마을넷 대표 / (전)푸른환경실천단장
- (전)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 사무국장
- (전)양재2동 마을계획단 전문가
- 2020년 서초구 양성평등기금 실무책임

오경희 2018년 6월 ~ 2019년 3월

- 서초나비마을넷 운영위원
- 서초구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대표자

김남혜옥 2019년 4월 ~ 2019년 11월

- LH서초 4단지 작은도서관장
- 서울시 주민모임연합사업 운영위원
- 부모커뮤니티활성화 지원사업 대표자
- 서울시 아파트 공동주택 활성화 실무책임

박금희 2020년 12월 ~ 현재

- 서울시 주민모임연합사업(우면넷) 운영위원
- LH마을공동체 연합 징검다리네트워크 운영위원
- 서초LH5단지 고운회 회장

김태현 2019년 12월 ~ 2020년 11월

- (현)서초사회적경제통합지원 센터장



서초마을
생태계지원단장
연혁

조진영 2017년 3월 ~ 2018년 12월

- 동남권NPO지원센터 서초PM(20. 4 ~ 현재)
- 서초구 마을공동체 위원(20. 3 ~ 현재)
- 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장
- 서울시 민관예산 협의회(환경분과)위원
- 서울시 서초구 우리마을공간 지원사업 총괄
- 너나울도서관 준비모임 대표(운영위원)
- 서초구(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컨설턴트)
- 서초구청 주민리더교육 강사

김남혜옥 2019년 1월 ~ 현재

- 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장
- 서울마을활동가연대 운영위원(20. 7 ~ 현재)
- 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 조직팀장
- 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 홍보팀원



서초나비마을넷 운영위원회가 함께 회의를 하고 있다.

2020 서초나비마을넷 운영위원회 명단

이순화

- 2020 서초구 마을지원활동가
- 2020 서초구 아파트공동체 커뮤니티전문가
- (현)양재마을넷 대표
- (현)양재2동 푸른환경실천단장
- 서울시 주민모임연합사업 운영위원
- 서초구마을공동체 골목지원사업 대표자
- 서초구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대표자
-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지원사업 대표자

이정숙

- 2020 서초구 마을지원활동가
- 2020 서울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운영위원
- 양재2동 마을계획단 미디어분과장
- 양재마을넷 운영위원
- (전)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 네트워크 팀원
-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대표자

김주현

- 2020 서초구 마을지원활동가
- 2020 서초구 서리풀 샘 멘토활동
- (전)서초구 우리동네 보육반장 활동

김정희

- (현)함께날자 반딧불 (공동육아) 대표자
- 2019 서초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실무책임

박연화

- (현)리본숲 사람들 대표자
- 리본숲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대표자
- 오플라워 대표
- (전)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 네트워크 팀원(20. 3 ~ 20. 9)

김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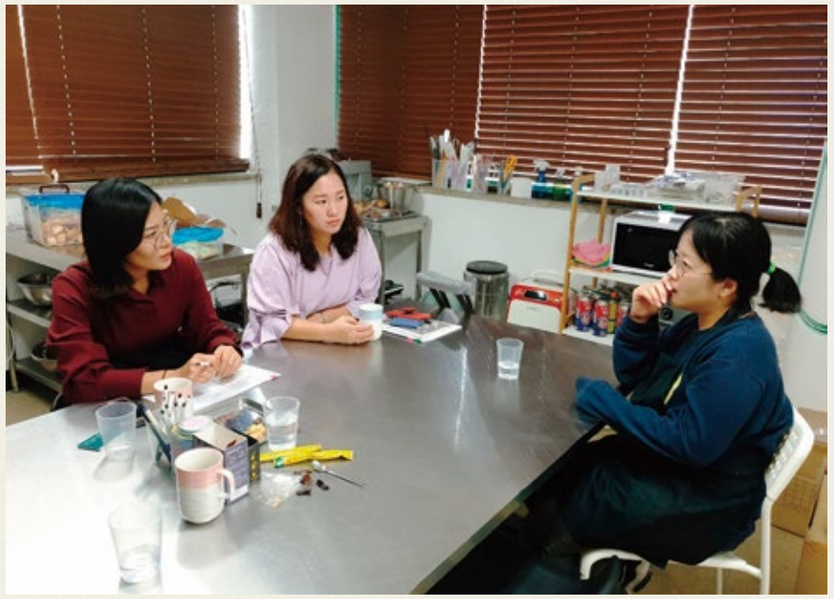
- 예비 사회적기업 BNBS 대표
- 2020 서울시 비영리 공익활동지원사업 활동

주은영

- 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 회계담당

박재희

- 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 교육 및 홍보 담당



서초나비마을넷 회원들이 청소년 진로 체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
운영진

김혜옥

서초나비마을넷은 서초구 지역 사회 내에서 이웃간의 관계망 형성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창립돼 마을 공동체의 인식을 높이고 마을 활동가의 역량을 키워왔던 서초의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초나비마을넷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서초구 마을공동체 활동을 돕는 '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초구 마을 공동체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뭉쳐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서리풀향'은 서초구의 오래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을 소재로 도심 속의 자연 환경과 친근한 지역 인프라를 알리고 행복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마을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 제작됐습니다. 서초구 마을활동가들의 정성과 노력들을 모아 '가족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마을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이번 발간집의 큰 힘이 됐음은 물론입니다.

앞으로도 서초구의 중요한 주민 네트워크 모임으로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춰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박재희

서초구에서 청소년 시절부터 거주했었지만 전 무심할 정도로 이 지역에 대해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서초의 모습에서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한 이곳 서초에는 어떤 역사가 담겨져 있었는지 무관심했고 무심했습니다. 오직 서초의 현재 모습이 발달하는 것을 보며 성장만을 바라 보진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서리풀향'은 서초구의 역사와 자연을 기록하고 이곳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번 발간집 제작과정을 거치며 서초구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나무들을 알게 됐고 숲과 물이 있는 자연 공존과 현재의 골목상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변화하거나 사라졌던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기록하는 의미와 소중함을 새삼 느끼는 기회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을 공동체 활동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어렵게 싹틔우고 있는 서초마을 공동체는 천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서초의 취약계층에 배포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끈끈함을 과시했다.



서초나비마을넷 회원들이
천 마스크 제작을 마친 후
배포를 위해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주은영

마을 활동 3년차. 공모사업, 공동체, 지원단…. 단어도 생소한 마을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마을 축제 현수막, 주민들의 공연 포스터, 마을 장터…. 서초구에서 일어나는 마을활동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 동네에서 다양한 마을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던 마을활동이 다양한 주민, 마을 활동가를 만나며 자연스럽게 마을 활동을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보며 작게는 가족, 친구, 넓게는 이웃과의 관계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지 경험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명애

훌륭한 자원들을 갖고 있는 공동체 '서초'가 알을 깨고 부화해서 푸른 하늘을 날아갈 그 날이 가까워지는 듯 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에서 '우아한 백조'가 되듯 말입니다. 아직은 마을 공동체로서 부족한 점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해를 거듭할수록 시스템을 갖추고 정서를 공유하는 백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초마을공동체의 토양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서초나비마을넷의 이번 자료집 발간은 이런 점에서 여러 모로 뜻 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서리풀향' 기획과 진행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작은 힘을 보탠 듯해서 뿌듯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현명해지고 보다 발전돼가는 서초나비마을넷,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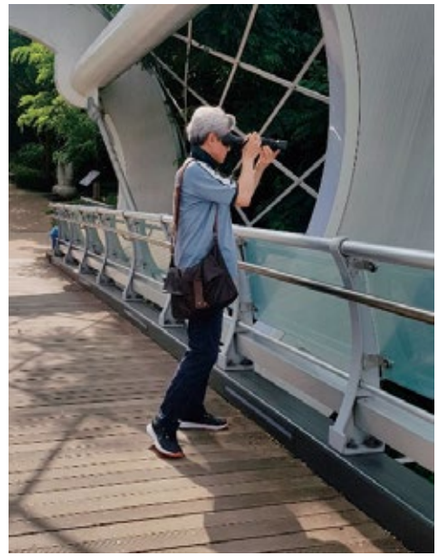
50플러스
마을기록지원단



‘50+마을기록지원단’은

50+세대의 인생 경험을 토대로 마을 활동을 기록, 조사해 마을공동체 성장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시작돼 올해 3년차 활동으로 지역 공동체 및 마을기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초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0플러스 재단과 협업하여 마을기록을 남기고 있다.

(인물 가나다 순)



김주만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나는 내가 몸 담고 매일 살아가는 마을을 몰랐다. 공기와, 물처럼 중요한 것이었는데 말이다.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는 노랫말처럼 내 가족이 함께 생활하며 쉴 수 있는 작은 집, 개념만 있었던 듯싶다.

매일 걸어 다니는 골목 이외에 거미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마을 길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어떤 눈으로 바라 보았나? 나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 내 머리 속에는 ‘대한민국’과 내가 태어난 ‘서울’이라는 곳 이외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내게 마을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것은 지난 7월 ‘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에서 주관했던 ‘서초마을 기자단 양성교육’에서였다. 강사가 “마을을 어떤 눈으로 바라 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 비로소 이 질문을 통해 ‘마을은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따스하게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다가가야 할 곳’임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 서초 고갯마루에 놓여진 누에다리에 올랐다. 이곳에서 40여 년 전 매일 출퇴근을 하며 지나쳤던 서초사거리 향나무와 내가 결혼식을 했던 자리에 들어선 예술의 전당을 내려다본다. 그 오랜 시간을 보내고 ‘서리풀향’ 발간집을 쓰고 있는 내가 참 대견스럽다.



이종화

서초마을에 살면서 나무를 보는 것이 좋았다. 늘 그 자리에 서서 나를 기다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나무는 느리게 살고 있는 듯하지만 멈춤 없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듯하다. 새로워지면서 그윽해지는 그 마음이 좋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 '천천히'라는 울림을 주는 멋진 생명체, 나무. 늘 한 공간에 서 있지만 매 시간마다 햇살 받으며 반짝거리는 모습이 다르다. 사계절 변화하는 모습은 더욱 새로워 나의 시선을 멈춤으로 이끈다.

서초구 보호수를 취재하며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감에 감사한 순간들이었다. 서초마을 문화재를 지키며 의연하게 버티고 자라온 나무들은 과거의 서초를 소환해 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현재 서초구 보호수는 25그루이다. 보호수는 존재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이 책에서는 총 11그루의 서초마을 나무와 그 인근에서 함께 보존되고 있는 서초의 문화 유적을 소개했다. 이 발간집 참여 과정을 통해 나는 다시 서초라는 공간과 주민들에게 애정이 깊어졌다. 오랫동안 이곳, 서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다. 이 책으로 서초마을의 또 다른 깊이를 느끼며 마 • 을 • 사 • 랑이 마을 공동체 모두의 마음속에 피어나길 기대한다



조혜란

처음 마을 기록단 활동을 하면서 기록을 위한 발간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을 때, 조금은 막연했었던 일들이 이렇게 멋진 기록으로 출간되는 것을 보니 기대 이상으로 기쁘다.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에 동참한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된 일이라고 예상을 못 했다.

물길인 양재천, 여의천, 반포천 등을 조사하며 걷기 편하고 보기 좋다고 마냥 즐기기만 했던 천들이 탄생 되기까지 끝없이 고민하고 노력했을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일꾼들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 덕분에 하천 공부와 사물을 대하는데 예전과 다른 관심이 부쩍 늘어나는 계기가 됐음을 고백한다.

서초구 마을활동의 중심축인 서초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정리하면서 마을활동이란 것이 한가한 누군가 하는 것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에 절실히 동감하기도 했다.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마을 어딘가에서 등 떠미는 이 없는데 불편함을 찾아 고민하는 마을활동가들이 있기에 주민들의 생활이 변하고 편리해지고 있음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다.

여력이 부족했음에도 기록을 남기는 일에 동참한 순간들이 한 획을 긋는 의미였기에 감사할 뿐이다.

사진으로 보는

서초의 자원



구룡산 둘레길 국수봉에서 바라본 서초의 전경 / 사진 이명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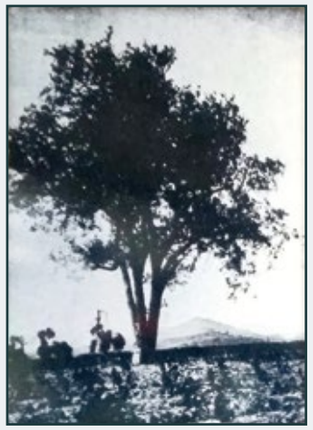
서초사거리 향나무 / 사진 김주만

〈잠원역 게시판〉



잠원역사 내 뽕나무 역사게시물

잠실리뽕나무



19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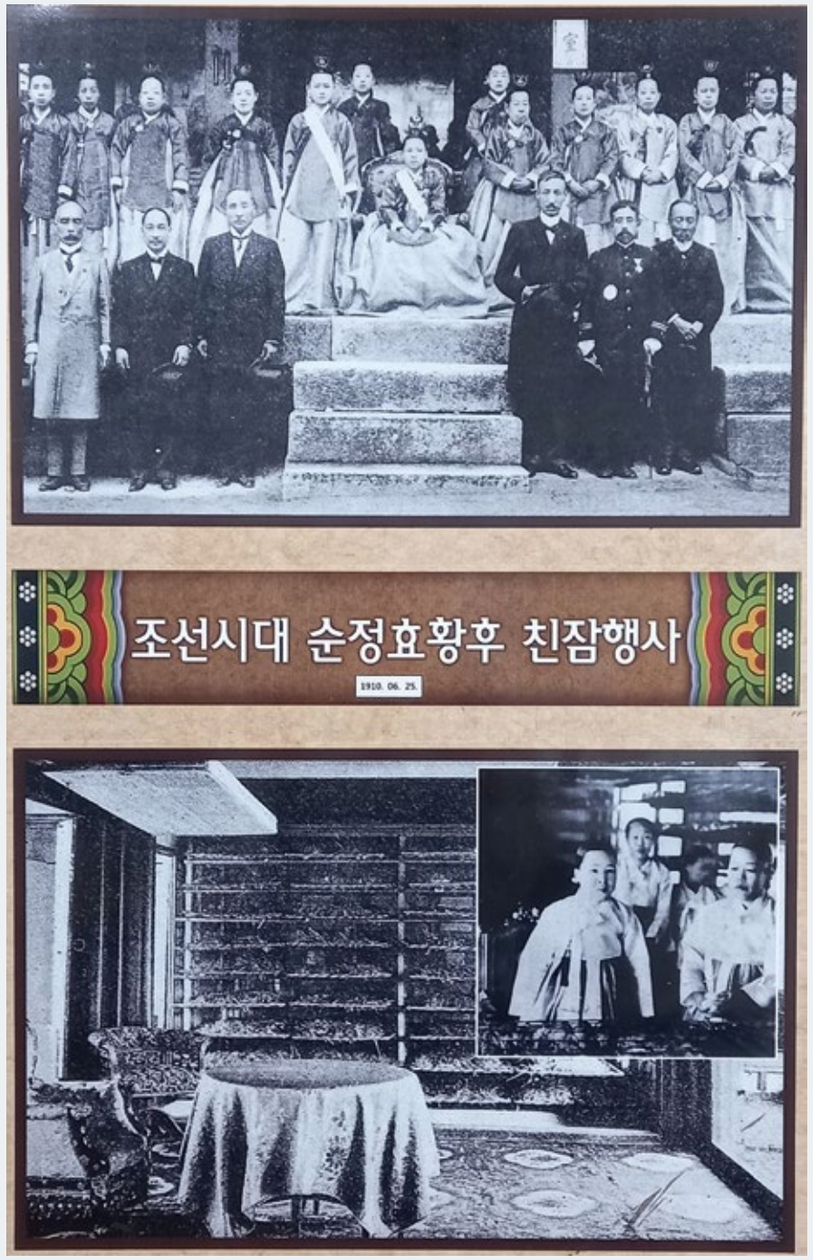


1972년



1990년

/ 사진 김주만



조선시대 순정효황후 친잠행사

/ 사진 김주만



누에다리



잠원역 내 누에벽화



여의천 청계산발원지



청계산입구 터널



상문고 한켠에 있는 성안공 상진묘역의 모습

2020

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
위탁기관 선정
(4차년도)

서초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선정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마을기록지원단 선정

2019

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
위탁기관 선정
(3차년도)

서초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선정

2018

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
위탁기관 선정
(2차년도)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서초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선정

2015

마을 사업지기 성장교육 공모사업 선정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상담 및 컨설팅

마을공동체사업지기 성장교육, 워크숍

태산선비마을 도농교류

서울시마을박람회 &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참석

서초구 마을리더 아카데미 지원

우리마을지원사업 마을축제지원

마음모아 마을공동체축제지원

서초구 마을공동체
어울림 한마당지원

2016

서초나비마을넷 창립총회
(대표 유양숙)-9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12월

서초구 마을공동체 민관거버넌스 참여

마을 사업지기 성장교육 공모사업 선정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상담 및 컨설팅

부모 커뮤니티 심사 및 컨설팅

서초구 마을공동체 사업설명회 지원

서초마을회의

동마을넷 지원

서초마을 어울림 소통의 장 지원

마을지원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서초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강의

서리풀 축제준비회의

마을리더 아카데미 지원

동마을넷 지원

서초마을 어울림 소통의 장 지원

마을지원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서초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강의

서리풀 축제준비회의

마을리더 아카데미 지원

서초구 마을공동체
어울림 한마당지원

2017

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
위탁기관 선정
(1차년도)

주민모임연합 의제 발굴 실행형
공모사업 선정

서울마을회의 공론장 운영

서울마을회의 서울마을의제 실행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20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상담 및 컨설팅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서초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상담,
모니터링, 컨설팅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설명회,
마을박람회 지원

사업지기 회계교육 지원 /
민민, 민관 거버넌스 구축

서초나비마을넷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서초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은 마을 활동을
제안하고 주민들이 마을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네트워크 지원

마을지원활동가, 마을강사,
마을기자단 운영관리

공동체 역량 강화교육, 워크숍

서초마을네트워크 회의 /
의제발굴 및 간담회

마을축제 및 동 네트워크 파티 지원

마을성장 지원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강화 사업

서초마을문화예술공동체 회의

마을지역자원 아카이브 /
온라인 홍보채널 구축, 운영관리

서초나비마을넷

나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마을공동체

발행
서초나비마을넷

발행일
2020년 12월

기획·편집
이명애, 박재희

기록
50플러스 마을기록지원단

디자인
디자인화소(Design Hwaso)

●

글쓴 이

1장 서초마을 나무
이종화

2장 서초마을 길
물길_조혜란 숲길_이명애 글길_이명애
손길_조혜란&이명애(길마중길)

3장 서초나비마을넷 사람들
오영숙, 김혜옥 _ 조혜란 김은영_김주만

찍은 이
김주만, 이명애, 이종화

본 결과물은 2020 서울시 50+보람일자리사업「50+마을기록지원단」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저작권은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기록원, 서초나비마을넷에 있습니다.

50+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香

서리풀향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본 결과물은 2020 서울시 50+보람일자리사업「50+마을기록지원단」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저작권은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기록원, 서초나비마을넷에 있습니다.